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9 1981년9월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September 3,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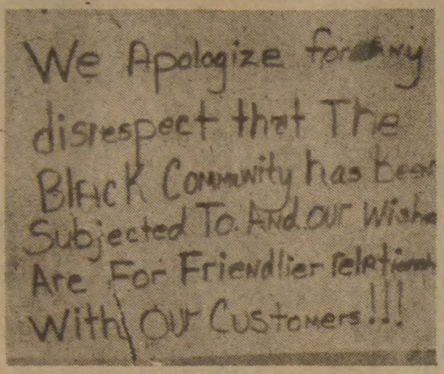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4 1981

黑人商街의 한인商人들

(上) 블랙파워에 홍역겪는 뉴욕·시카고 實態

미주 각지에서 한인들이 흑인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약 3년전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한인상인과 흑인 고객간의 마찰은 뉴욕과 시카고에 까지 번졌다. 흑인이 인력거에 동양인을 태우고 땀을 흘리며 끌고가는 그림을 할렘 요소요소에 붙여 흑인 주민을 자극한 일이 있은후 자마이카에서 흑인 주민들이 10여일간 조직적으로 한인 청과상 앞에서 데모를 벌여 가게문을 잠정적으로 닫는 소동을 벌였다.

특히 자마이카 데모사건은 배후에 유력한 흑인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마이카 흑인컴뮤니티의 데모사태 수습조건으로 흑인 주민들에게 제시한 사과문. 이 사과문은 12일 하오부터 예씨의 가게앞에 나붙었으며 여러 블랙컴뮤니티 페이퍼에서도 기사화 했다.〈뉴욕지사〉

흑인 데모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시카고 남부의 흑인상가에서는 교포상인이 흑인가게 사이에 옷가게를 차리고 들어선 것을 계기로 흑인상인들이 이 지역 교포상인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한인상인과 흑인고객 혹은 흑인상인 간의 마찰을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분규수습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온 흑인대표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흑인 고객들은 평소에 교포상인들로부터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인을 「경제적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흑인들은 이 밖에 ▲한인상인들은 과거 유태인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흑인지역에 들어와 돈만 벌어가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지 않으며 ▲흑인동네에 와 장사하면서 흑인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한인가게 앞에 와 데모를 벌이는 흑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데모대원 중에는 교수도 있고 법과대학 재학생도 있다는 사실이다.

흑인 지도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자마이카 분규 수습 협상에는 자마이카 흑인대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흑인 지도자들도 참석했다고 한다.

『도둑맞고 울타리 고치는 격』이긴 하나 흑인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흑인데모의 원인의 일부가 한인상인들이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데 있는지도 모르며, 요즘 나타나고 있는 충돌이 하나의 「시작」이며 자마이카나 할렘뿐 아니라 다른 흑인상가에서도 앞으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문제지역 교포상인들의 중론인 것으로,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흑인상가에서 장사하는 교포 상인들중 「상인번영회」등을 만들어 평소에 흑인 주민들과 잘 지낸 곳은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규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3년전 흑인데모와 흑인들의 한국상품 불매운동으로 홍역을 치뤘던 필라델피아의 교포상인들은 그 후 그곳 한인경제인 협회가 꾸준히 흑인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한 결과 요즘은 아무 마찰없이 장사하고 있다고 이회봉 필라한인경협회장이 전했다.

▲흑인상인들의 「코리언 배척운동」의 불씨가 됐던 교포의류상 「조·김 패션」이 11일 낮, 불화를 빚어온 이웃 흑인의류상 「플로라 로레나」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반소되었으며 인접한 「섬 위그」교포 가발가게도 반소된후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시카고지사〉

때늦기전에 미리 손써서 共存체제를…

불길솟은 韓人배척운동을 診斷한다

동부 브루클린의 폐허지역인 피티킨 애비뉴의 한인상인 역시 번영회를 조직해 주민을 도와 아무 탈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현지 흑인신문이 교포상가의 모습을 그린 특집기사까지 게재했다.

흑인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이 집단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에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흑인들과 달리 최근에 이민온 한인들이 흑인들이 백인들로 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가며 쟁취한 민권운동의 결실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란 의견도 일부 교포사회에 일고 있다.

흑인지역의 한인상인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흑인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빼앗겨 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루즈벨트 행정부 이래 미국의 복지정책으로 일 안하고도 생활 할 수 있었던 흑인들이 레건 예산안이 곧 발효됨에 따라 푸드·스템프, 소셜 시큐리티 혜택등 각종 혜택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실업율이 7%이나 흑인 실업율은 14%이며 흑인 청소년 실업율은 이의 2배에 도달하고 있다.

이같은 흑인들의 불만으로 레건 긴축예산이 피부에 와 닿을 82년 여름이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일부의 우려가 있다.

잘 살려고 미국에 이민온 교포들이 흑인소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이 無視한다」가 거부反應발단

평소 住民과 접촉많은 地域 마찰없어

組織된 黑人데모… 教授도 動員돼

에 교포상인들이 『코리언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흑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한때 일본인을 「왜놈」, 중국인을 「되놈」이라 불렀던 한민족은 무의식중에 백인을 우월시하고 흑인을 깔보는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흑인 역시 백인보다 새 이민집단인 동양인을 만만하게 보고있어 앞으로 두 인종

『한국인들은 가게세는 비싸게 내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싸게 판다』

할렘 125가에서 40년동안 장사를 하고 지난 9년간 여자 신발가게를 경영해 오고 있는 「보스 슈즈」의 조 웨이드씨는 한국상인들을 종합적으로 이같이 평하고 있다.

웨이드씨는 황폐해진 할렘에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한인가게가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서 가게세가 인상되기 시작하여 이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흑인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상인들은 조금만 인내성을 가지고 집을 구하면 할렘의 125가 지역에서 정당한 값을 주고 가게를 구입할 수 있고 황폐해진 할렘도 살리는 길이라는게 웨이드씨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인들은 무조건 건물주가 달라는 세를 다주고 경우에 따라 한국인 자신들이 높은 세를 제안하여 가게를 얻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흐려놓은 경우가 많다고 웨이드씨는 할렘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다른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한다.

웨이드씨는 『내 가게에도 전세기간이 끝나면 현재 한인들이 내는 세만큼 주인이 요구하면 40년간 이 거리에서 하던 장사를 그만두게 될 정도로 큰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웨이드씨는 또 한국인들이 비싼 가게세를 내는 만큼 물건값도 비싸야 할것인데 반대로 상품값은 비교적 싼 편이어서 같은 상인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할렘 125가에 있는 「레오나」라는 여자 옷가게의 종업원들은 한국인 상인들중 상당수가 손님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고 평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흑인상은 최근 이 지역에 날치기꾼들이 늘었는데 한인 상점에 잘 나타나 손님들의 물건을 날치기해가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종업원들은 한인상점주인중 일부는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한 날치기꾼들이 손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주고 경찰에 연락을 안한다는 것이다.

이 종업원은 이러한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가게는 믿을 수 없는 가게가 될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날치기꾼을 길러 사회악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태풍 한국남부 강타

인명손실23명, 재산피해65억

(서울1일=연합)지난주말 한국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는 23명(15명 사망 8명실종)의 인명피해를 남기고 수천명의 이재민을내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집계에 따르면 약 65억원 재산피해를 남겼다. 2만2천여 가옥이 피해를 입고, 11척의 선박이 침몰됐으며, 1,4000정보의 논밭이 침수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5일째 2000여 관광객들이 태풍 「애그네스」호에 발이 묶여 있다. 제주 근해에는 태풍주의보가 계속내려 대만어선등 각종선박이 발이 묶였고, 항공운항도 중지됐다.

1일현재 제주남쪽에서초속 18m의 속도에 북진하는 태풍「애그네스」는 한명의 대만어부의 생명을 앗아갔다.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상황은 태풍이 걷힌후 더욱 드러날것 같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사랑은 국경을 넘어

캐나다청년 몽고처녀와

(몬트리얼) 진실한 사랑만이 최후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몬트리얼 출신의 저바이스·라보이씨는 그의 애인인 몽고인 처녀를 되찾을 때까지 중국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이곳 신문의 톱을 장식한 라보이씨는 중국을 방문중인 매쿼건 외무장관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그의 약혼녀가 가족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라보이씨는 작년 중국영토인 내몽고에서 유학중 25세의 무용수인 바오·유양을 만났다.

이 소식을 들은 매쿼건 장관은 등소평 부수상에게 이 문제를 제기 등으로부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라보이의 비자는 그가 원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매」장관은 말했다.

중국법에 의하면 라보이와 바오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녀가 내몽고 출신의 소수민족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소수민족에게는 간섭하려 지 않는다.

중국관리들은 북경주재 캐나다대사관에 바오는 경찰간부인 그녀의 아버지가 바오 모친의 병세악화로 집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한번 이혼경력이 있는 라보이씨는 "그녀는 기회만 있으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우리들은 진실로 사랑했고 꼭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보이 전처 미셸·뮤참 여사도 "그들은 이상적인 커플이다 라보이의 결심은 대단히 굳은 것같다"고 말했다.

라보이는 작년4월 중국에 건너가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의 캐나다 업체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있다.

라보이는 바오를 찾는대로 북경에서 결혼할 예정이며 몬트리얼로 돌아올 것이라고 라보이의 부모는 말했다.

◇캐나다청년 라보이와 몽고처녀 바오양의 다정했던 한때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신장개업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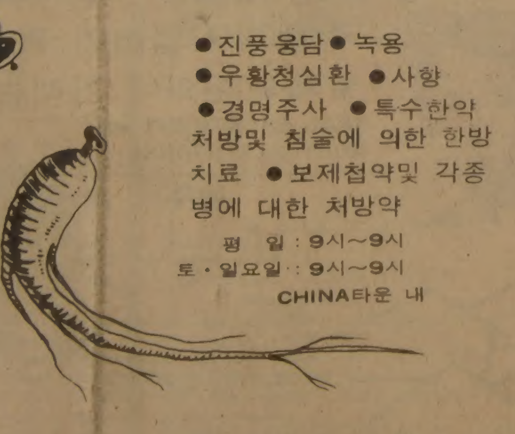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
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9시~9시
토·일요일: 9시~9시
CHINA타운 내



촤이나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문예 작품 응모마감

9월18일(금) 오후5시까지

그동안 문예작품을 공모해온 협회는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라는 뜻에서 우편파업으로 마감일을 연기했었다.

오는 9월18일(금)오후5시까지 접수를 공식마감키로 하고 다시한번 관심있는 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게 되었다. 우편으로나 또는 본인이 직접 협회 사무실로 기간내에 제출하면된다.

종류는 수기, 시, 수필, 공트등으로 장수는 제한없으며, 입상자를 가리어서 1등 $500, 2등 $200, 3등$100씩 수여하게 될 것이다.

마감후 심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입상자를 가릴 것이며, 입선작품은 책자로 만들어 협회 회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쿠폰써비스에 대하여

이제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스토어에서 수집한 각 쿠폰들을 분류하여 그 발행회사에 보상액을받도록 무료로 주선하여 왔는데, 폭주하여오는 쿠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다시한번 회원들에게 몇가지 사항을 알린다.

쿠폰은 각 제품회사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업자를 통해 발행하여 디스카운트를 하여주고 그 제품의 쿠폰을 받아준 소매상들에게 액면 할인가격과 수수료를 보상하는제도이다.

이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토론토에는 Herbert A Watt 사와 생존의 Nielson Clearing House 가있다. Nielson회사는 소매상의확인을 위해 제품회사의 인보이스 카피두장과 소매상확인 신청서를 같이첨부하여야 보상금 신청용지(Claim form)을 보내주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우편파업 이후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또 쿠폰이 계속 우송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를 자세히 알고있지 못해서 아직도 현금화 할수있는 쿠폰을 사장시켜 기일이 경과되어 못쓰게 되었거나, 덩그라니 쿠폰만 보내주어 손도 못대고 협회 사무실에서 기일을 놓치게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크레임 용지의 신청은우선 회원들이 먼저하여 그 용지와 함께 쿠폰을 보내주어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부디 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유염하여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장 : 이형인
부회장 : 임철현
〃 : 김명정
이사장 : 김태진
부이사장 : 전윤식

〈제 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남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뉴스중에 가장 시선을 끄는 것들이 경제문제 들이다.

캐나다의 경제문제는 곧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연관이 된다. 오늘의 은행 이자율은 어떻게 변했으며,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가 기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아우성임을 남의 일처럼볼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물가상승을 가르킨다.

코너스토어를 경영하는 우리 회원들의 경우에는더욱 민감하다. 도매상을 출입하다보면 더욱 스페샬품목을 찾게되고, 배달을 시키다보면 청구되는 인보이스의 단가가 계속 상승함을 알 것이다. 물론 물건값이 오르기전에 사두었다가 오른값에 팔면 엉뚱한 이익이 생기니 그 아니 좋은 일인가? 그러나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언제쯤 물건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도매상들이정보를 흘려 내 보낸다. 그러면 있는돈 다 챙겨서 그품목을 사게된다. 담배의경우 더 그렇다. 담배는 코너스토어의 주종품목이기 때문에 담배를 팔다가 재고품이 바닥이나면 낭패하므로 늘 담배를 여유있게 확보해 둠이 현명하다. 증권시장에서나 통하던「사재기」라는 단어가 있다. 즉 물가가 오르기전에 싼값에 사두기 위해서 아우성 쳐가면서 사놓는다는 말이다.

담배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때 도매상에 가 보면 너도나도 몇박스씩 아니면트럭으로 사간다고 한다. 그렇게하여 오른값으로 팔아버리면 상당한 이윤을 얻게될것 같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근래의 은행 이자율이 어떤가? 아마도 대출금리는 22%가량 주어야 돈을 빌릴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담배이윤은 18%라고 본다. 담배스탁이 떨어져 급히 도매상에 뛰어가 보면 싹쓸어 가버린 진열장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한다. 어떤 일이냐고 쎄일즈맨 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너무 동포들이 사 가버린게 아니냐고 되 묻는다. 그러면서 너무 생각없는 일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둥 하게 한다고…

경쟁을 의식하고 열심히 뛰는것도 좋지만 필요이상으로 사 재기 하는것도 부끄러운일이 아닌가? 상도의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몸짓에 있다고 본다. 소매값은변동이없고 도매값만 변한다면 말은 다를 것이지만 담배값이 변한다는것은 고객들이 더욱 민감한것을 잊지말자. 폭리를 볼수없는 사회체제 속에서 하찮은일로 핀잔받는 우리 회원들이 되지말자고 한마디 해 본 것이다.

걸작만화

"Take Karate lesson."
「당수를 배우라고」 <상담실>

밀크 값 또 인상?

지난9월30일자 토론토선지는 낙농업자들의 생산비앙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밀크값을 재 인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낙농업자 들은 헥토리터(Hectolitre) 당 $2씩(리터당 2 센트꼴) 인상된 가격을 오는 11월1일부터 반게될 것이라고온타리오 밀크 마켓팅위원회 위원장 케넷 G 멕키논 씨가 발표했다.

현재 각 소매상 보통 가격은 3리터 백밀크가 $2.19, 3쿼터적밀크가 $2.28씩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주 밀크제품중 크림류는 이미인상, 지난2월 이래로 제품업자 도매상들에 의하여 우유값은 4.8% 인상됐다.

멕키논씨에 의하면 시설과 도구, 운영관리비가 상승, 또 고이자율과 에너지 코스트를 첨가할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수 없다고말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⑤②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1947~1948년의 겨울이 끝나갈때 나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는동반자가 생겼다. 나의 부질없는 호기심을 이해하고카나다 해군에 근무할때 북극을 항해하는 동안 북극의 마력에 도취해버린 동물학을 전공하고 있었던앤드루·로리라는 학생이 바렌으로 돌아가는데 나를동반자로 선택해 주었다. 우리들의 포부는 툭투(사슴)를 1년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숫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얼어붙은 땅

1948년에는 처칠과 뉴엘틴 레이크까지 연결해 주는 튼튼한 안전 비행기도 없었다. 나를 처음으로실어다준 죠니·보랏소는 마지막으로 북극의 불안전한하늘로 그 낡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불이나서 서쪽멀리 웅덩이에 처박혀버려 잊혀진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존·잉커브릿손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의아들 구나르는 처칠에서 운영되는 개인비행기 회사에서 작은 비행기를 빌려 그가 공군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이 갑갑하고 작은 비행기로 앤디와 나는 서쪽 의 텅빈 하늘을 가로질러 바람에 쌓여있는 윈디베이캐빈의 희미한 윤곽을 또다시 볼수있게 되었다. 우리는 나의 첫 여행때 보다훨씬 이른철에 도착 했다. 그래서 아직도 한창 겨울이었다.

비행기가 떠나간 후에앤디와 나는 꽁꽁 얼어붙은 벌판을 지나 오두막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날씨가 하도 추워서 나의 숨결이 곧 얼어버려 앞을 내다보는데 방해를 했다. 앤디가 갑자기 내팔을 붙들고 눈이쌓인 언덕을가리켜서 보니 우리들을 향하여 내닫는 사람같은 검은 형체가 보였다. 고스트힐에서 바람이 애련하게불어오고 호수의 얼어붙은얼음의 반사를 받아가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텍바로 그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우리앞에 와서 우뚝서더니 비쩍마른 얼굴에미소를 띄웠으나 평상시처럼 목구멍에서 울려오는 폭소는 터트리지 못했다. 우리를 만나게 된것이 오텍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 이었다.

우리셋이 언덕밑에 있는 집에 도착해서 낡은 문을 통해 들어서자 오텍은 몸짓과 시늉을 해가며 혹시 백인이 윈디베이에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허망한 희망을 가지고 리틀레이크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식량이 떨어져서 할수없이 아무도 없는줄 알면서도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그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하나의 희망, 그것은 집주위에 인적이 없는것을 보고도 버리지 못하는 희망이었다. 이틀을 꼬박 굶고도 하늘로부터 도움이 떨어 지리라는 맹목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다.

3일째 되는날 마을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을옮기기 시작할때 코네타이브(백인들의 날개)의 기적같은 엔진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오텍은 우리와 식사를 마친후에 실탄을 받아갔다. 사슴떼의 선발대는 이미 평원에 도착해 있어서 실탄만 있으면 봄의 기근은 면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오지 않았거나 한달후에 도착했더라면 봄이 왔을때는 쿠니와 아노틸럭같은 고아들이 무수히 나왔을 것이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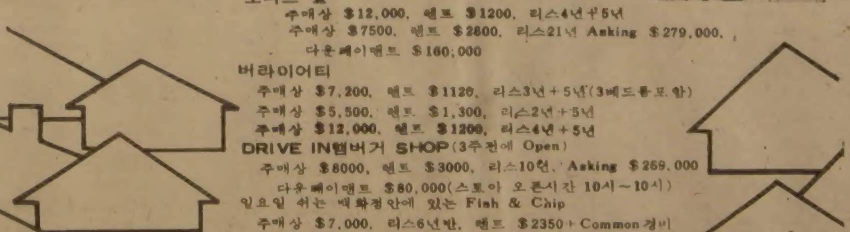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대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맨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맨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맨트 $120,000
세일즈맨 신영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韓半島 緊張高潮 시위企圖

北傀 對韓經協與件惡化획책
對美對話 봉쇄되자 長期戰略

【워싱턴29日＝曺淳煥특파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레이건 美행정부에 도전함으로써 非同盟국가들의 주목을 끈다음 잠잠했던 駐韓美軍철수요구를 오는9월 유엔총회에서 다시 제기하려는 장기전술로 행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표명하고있다. 유명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도크·바네트교수와 지난80년여름 솔라즈하원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 金日成과 면담한바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 랄프·클라프씨, 그리고 익명을요구하는 조지·워싱턴大의 한 교수는 북한이 射程에 미치지도 못하는 SAMⅡ 미사일을 미국의 SR71機에 발사한 底意에 한결같이 의아해 하면서 이번사건이 지닌 政治性을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이 끈질기게 시도해온 워싱턴과의 대화 가능성이 레이건 취임후 철저하게 봉쇄되자 전술을 바꾼것이 분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어 이번 북한의 공격이 미군 첩보기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이미지를 최대한 실추시키고 한반도에 여전히 긴장요인이 팽배해 있음을 입시, 한국에 쏠리는 投資의길을 차단하려고 기도한것 같다고도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그런 판단의 근거로 한국내 상황이 극도로 불확실했던 朴正熙 대통령弑害사건 직후에도自重했던 북한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 韓日간 經協의 확대가 논의되는 싯점에서 일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은 3명 전문가들이 진단한내용이다.

本社 曺淳煥특파원·美專門家3명 北傀미사일攻擊 긴급診斷

일저지르고 「非同盟」의 환심끌게
反蘇聯合에 유엔서 美軍撤收주장할지도

—美행정부관리들은 북한의 미사일로서는 고성능SR71기를 떨어뜨릴수없는데 왜 미사일을 쏘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動機랄까 목적이 무엇일까.

▲바네트교수＝모르겠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클라프씨＝북한이 무엇을 노리고 했는지 알수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에돌아갈 이득이 있을것같지 않다. 잘못 짜여진 계획인것같다.

▲조지·워싱턴大교수＝우선 金日成은 SR71기를 격추하면 비동맹국가에서 영웅이 될수 있을것이고 軍備增強으로 나가는 레이건행정부를 좋지않게 보는 그들의 환심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또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것은 한국정치상황을 다르게 평가한데서 나온 것 같다. 2년전 朴대통령이 암살된후 한국政情이 불안정해 있을때는 북한이 이같은 도발행위를 하지않고 남한의 분란이 심화되기 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는 全斗煥대통령이 이끄는 現정부가 안정을 굳혀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본것같다. 여기서 전략변화가 온것이다. 한국政情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것같다. 도발행위를 계속함으로써 韓美양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게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점도 있다고 보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위험한 지역으로 만드는 쪽이 이익이 더 크다고 그들은 본것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협력등 한국에의 국제투자가 줄어들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위험한 한반도에 왜자꾸 말려드느냐하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북한은 본것이다. 미사일을 美軍機를 향해 쏘았지만 표적은 한국에 두었다고 하겠다.

▲클라프씨＝설령 미군기가 이번 사건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비동맹국가의 대다수가 북한편을 들게되리라고 볼수는 없다. 북한을 좋아하는쪽과 싫어하는 쪽으로 비동맹국이 갈라질것이다. 어느쪽 수가 더 많을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수 없다.

—미사일발사를 소련과 事前협의까지는 안했더라도 비밀에 싸인 고성능 SR71기를 격추하면 미국과 팽팽히 맞서있는 소련이 지지할것으로 기대하고 북한이 이번사건을 일으킨것은 아닐까.

▲바네트교수＝그렇게 분석하는것도 역시 지나친추측일것이다. 이런문제를 소련과 상의할 정도로 북한과 소련관계가 좋다고 볼수는 없다.

▲클라프씨＝역시 그렇게 볼수는없다. 소련은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이디오피아등 골치아픈데가 많다. 소련은 한반도가 조용해있기를 원한다. 소련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것을 원치않는다. 美·蘇관계는 69년 美EC121대형첩보기가 북한에의해 격추됐을때보다 더악화되어있는게 사실이나 소련은 한반도긴장고조를 원치않는다.

▲조지·워싱턴大교수＝한국을 겨냥해서 북한은 주체적으로 이번사건을 일으켰으나 中·蘇를 의식하지 않을수는없다. 그렇지만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너무접근하는 中共, 한국과도 경제적으로 가까와지려는 중공에 경고를 주어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또 소련에게도 같은 효과를 노렸다고 볼수 있겠다.

—현재 북한은 中·蘇중 어느쪽에 더 가까운가.

▲바네트교수＝일반적으로 말해북한은中·蘇양국과다같이 관계를좋게가지려고한다. 북한은 분명히 지나치게 미국에 접근해가는 중공에 불만을갖고 있으나 역시 현재는 소련보다 중공에 더가깝다고할수있다. 미사일 발사사건이 중대한 사건이기는하나 이사건하나만으로 북한이 中·蘇等距離외교서 어느한쪽으로 접근해간다고 보는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미사일사건 하나만으로 북한 전략의 장기적 변화의 측면을 전망하기는 좀 미흡하다. 지난 수삼년동안 소련과 북한관계가 과거보다 好轉되어온것은 사실인것 같다. 북한에대한 소련의 정치·외교 영향력도 확대되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클라프씨＝中·蘇어느쪽에 더가깝다기보다 「主體」에 더가깝다고 할수 있다.

▲조지·워싱턴大교수＝북한이 적극적으로 소련에 접근해가기보다는 중공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것만큼 소련과 접근해간다고 볼수있다. 북한이 비동맹외교를 重視하는것은 제3세계에서의 혁명을통해 세계곳곳에서 미국힘을 약화하는데 목적을두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것도 제3세계혁명을 위한것이고 巨視的으로보면 미국의 힘을 약화하기위한 것이다. 美·蘇간의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소련과 북한관계는 접근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사건으로 美·北韓관계 南·北韓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바네트교수＝레이건행정부는팽창하는소련세력을의식해서중공정부와전략적우호관계를 증진해가며 日·中관계도 그맥락에서 증진되어가는바 反蘇연합의 기운이 아시아에 일고 있다. 고립되어있는 북한은 형성되고있는 反蘇연합이 그들에게 매우 거센 물결이 될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래서 이번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북한관계가 좋아질리는없다.

▲클라프씨＝미국과북한의 관계라는게 뭐 있는가. 고작해야 미국학자들이 북한을방문하는 정도다. 북한은 이번가을 유엔총회에서 미국을상대로 어떤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SR71정찰기가 북한영공을 침범했다고 북한은 여러차례 미국을 비난하고있다. 모르긴해도 SR71기의 북한영공침범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고 그와 곁들여서 세화된 駐韓美軍 철수문제를다시 들고 나올지도 알수없는 일이다.

▲조지·워싱턴大교수＝북한은 금년들어서도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나 미국과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사건으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美·북한관계는 상당기간동안 악화되어 갈것이다. 북한이 계속될SR71기 정찰비행에 또 도발행위를 하면 미국은 應射등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겠다고 말하고있어 美·북한관계는 점점더 팽팽해질것 같다.

日巡視船 獨島領海침범
閣僚會談앞서 새外交紛爭으로
5百m 앞까지接近

韓日관계의 再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일본해상보안청소속 巡視船 1척이 28일 獨島앞의 우리 領海를 침범한사실이 밝혀져 韓日간의 새로운 외교적분쟁으로 번질것같다.

정부는 일본巡視船의 領海침범은 우리의 主權을 침해하는 외교적 挑發행위로 重視, 이런 행위가 再發할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日側에 귀속한다는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警告를 29일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특히 日巡視船이 獨島근해의 우리領海를 침범한 사실은 최근 安保·經協을 통한 진정한의미의 善隣관계를 지향하려는 양국국민의 노력에 위배되는 故意的처사로보고 1차적으로 외교채널을통해 日側에 엄중경고하는 한편 오는9월10일 서울에서열리는 양국정기각료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의경위와해명을요구할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孔魯明외무부政務차관보는 사건발생직후인 28일하오 마에다·도시가즈(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領海침범을 엄중항의하고 이같은 不法행위가 再發할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日側에 있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특히 이번 사고의 발생싯점에 주목, 『韓日外相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요청한 60억달러의 對韓經協공여를 부분적으로 縮減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를일』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獨島문제라는 韓日양국간의 해묵은 고질거리를 再燃시켜 정작 結의 초점이 되는 양국간의安保的차원의 경제협력문제를 분산·糊塗시키려는 얕은奸計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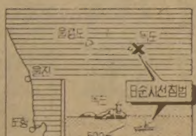
10여分머물며 燈臺등 관찰

獨島앞바다에 나타난 일본 海上보안청소속 巡視船은 PL114 오끼號(1천톤급)로 28일새벽 5시50분께 獨島등대앞 5백m해상까지 침범했던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보고에 따르면 이순시선은 짙은 안개를 뚫고 나타나 10여분동안 머물면서 승무원 10여명이 선상에서 쌍안경으로 獨島등대쪽을 관찰한뒤 浦項쪽으로 선수를돌려 항진해갔다는것.

일본 순시선이 獨島부근영해를 침범한것은 지난77년이후 두번째다.

한편 29일경찰은 일본해상보안청에 『PL114』란 순시선이 있느냐』라고 질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



南총리 파리도착

【파리29日＝河長春특파원】 北歐巡訪길에 오른 南悳祐국무총리는 29일 상오8시20분(한국시간 하오4시20분) 파리 오를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南총리는 이날저녁 閔丙岐駐佛대사가 주최하는晩餐에 참석했다.

에너지節約 生活化를
全대통령 모든業體에 技術지도추진

全斗煥대통령은 29일 상오 서울 鍾路區靈泥洞에있는 에너지관리公團을 시찰한뒤 江南區三成洞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고있는 「81에너지절약型 機資材전시회」를 둘러봤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에너지관리공단에 들러 金상숙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절약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에너지多消費업체는 물론 모든업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에너지절약업계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업체에 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는방안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에너지절약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해 일반가정과 공공건물 그리고 업체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낭비가 많고 無節制한 차량운행의 사례가 있는것같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전국민이 협조해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한만큼 그財源을 다른분야에 투자할수있어 국가재정이나 경제발전에도 큰도움이되는것』이라고 설명하고 『언론기관과 협조, 적극적인 에너지절약홍보활동을 전개토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金이사장의 안내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81에너지절약型 기자재전시회」를 찾아 45분동안 국내외 1백1개업체에서 출품한 산업용및 가정용 보일러, 燃燒기계류, 태양열이용기자재류 5천여점을 살펴봤다.

이날 시찰에는 金鎔煥동자부장관과 李雄熙공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수행했다.

부시副統領警告
"挑發 보복않는 時代끝나"

◇부시 美부통령

【케너벙크포트(美메인州)28日AP＝聯】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도발을 받고서도 보복을 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수있던 시대는 끝났으며 미국은 더이상 어떤 굴욕도 감내하지 않을것이라고 조지·부시美부통령이 28일 말했다.

부시부통령은 이날 향리 케너벙크포트에서 휴가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들이 미국에 돌을 던지고서도 모종의 보복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기대할수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부시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이 제문제를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생각하는것이지 모든 굴욕을 감내한다는 견지에서 생각하는것은 아니라고 전제, 미국은 월남전후 군사력 행사를 자제해왔지만 『12년전의 양심의 가책때문에 더이상 도어·매트(현관의 구두흙을터는 매트)신세가 되지는 않을것』이라고말했다.

美,「非常계획」保有
北傀도발 對備

【샌터바버라(美캘리포니아州)29日UPI＝聯】 미국은 앞으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는 북괴의 對美정찰기공격에 대비,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래리·스피크스백악관부대변인이 28일 확인했다.

스피크스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앞서 『미공군은 앞으로 북괴의 공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에드윈·미즈대통령수석고문의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

中共 SR71소개
미사일 攻擊보도

【北京29日UPI＝聯】 중공중앙TV방송은 美SR71정찰기에 대한 북괴의 미사일공격사건을 사건발생3일만인 29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중공TV방송은 그 SR71정찰기의 모습과함께 그주요제원을 열거하면서 워싱턴발보도를 인용, 이 사건에 대한 미측의 주장을 아무런 논평없이 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再挑發땐…

地平線

미국 사람중에 그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아더·닐센이 죽었을 때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최대의 시장조사 … 42년에 …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기업화하고,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를 기업화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다.▼닐센의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미국에서 1천1백70가정을 표본으로 뽑아 오디미터라는 장치를 한다. 이 장치는 수상기 스위치나 다이얼의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표본가정에서 시청日記를 쓰게 한다. 두 자료는 1주일에 한번 컴퓨터분석을 거쳐 발표된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몇%의 가정에서 보았느냐를 나타낸다.▼이렇게 얻어진 「닐센評點」은 마술적－또는 악마적인 힘을 발휘한다. 예컨대, 뉴욕 한 도시만 떼놓고 보아도, 밤11시 뉴스의 「닐센評點」이 1점만 오르면, 한해 광고수입이 1백만달러나 는다. 「닐센評點」에 대한 광고주들의 「評點」이 높기 때문에, 광고單價가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방송국으로서도 명명할수가 없다. 그래서 「닐센評點」의 자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3大네트워크는 한해 1백50만~2백만달러씩의 구독료를 낸다.▼우리도 종종 「닐센評點」의 짧은 외신을 흥미롭게 읽는다. 「뿌리」와 「조스」의 시청률이, 어떻고, 「將軍」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끌었느니 하는 따위다. 그로해서 외화의 수입가격이 달라지고, 덩달아 광고單價가 오르내린다면, 우리도 「닐센評點」의 마술을 겪고있는 셈이 된다. 그럴 때, 이상한 것은, 정작 텔레비전 시청의 주종인 「國產」프로그램은 「評點」만 깊이 없는 것이다.▼이같은 생각은 KBS가 개국20주년을 기해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더 절실하다. 방송국마다 자체적인 시청률 조사가 있을테지만, 그것이 공개된 일이 없고, 그 객관성이 어떨지 당수가 없기때문이다. 돈을 대는 광고주도 마찬가지로 답답할 것이다.▼물론 「닐센評點」은 「質」보다 「量」을 측정하는 약점이 있고, 시청률에 목을 건 방송 편성에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편성의 기준이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개선노력이 돋보이기에, 그런 조사기능이 더욱 아쉬워진다. 적어도 광고주가 신뢰하고, 시청자가 수긍하는 「評點」이 필요한것이다.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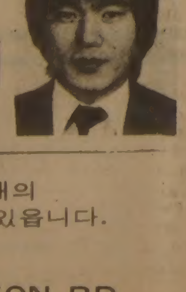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4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제1회
바시티배 쟁탈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제상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샌디 김경시 문영환
지문상 조용덕 김세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배 윤호영
최이미 조동식 정재홍 김은하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放送노조 罷業위협에 波정부, 軍動員경고

"바同盟시설 妨害못해"
「報道완전독립획책」 非難

【바르샤바29日AP=聯】 폴란드정부는 자유노조연맹산하 방송노조가 노조활동에 대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위협하고 있는데대해 28일밤 정부로서는 군을 동원하여 이 파업을 분쇄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TV를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국은 바르샤바동맹군 통신체제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이시설들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지라도 용납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성명은 또 방송국의 침묵은 긴장을 증대시킬뿐이며 국가기능과 사회평화를 위협하는 범상치않은일이될 것이라고강조했다.

한TV논평가는 이와함께 자유노조가 방송보도진의 완전독립과 궁극적으로는 방송감시체제를 실현시키기위해 파업을 획책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자유노조측의 요구사항들은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논평가는또 방송노조의 파업계획이 언론인들을 위협하여 국영라디오·TV체제를 장악하려는 강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경논조의 성명을 발표한후 수시간만인 29일 자유노조대표들과 내달 개최되는 제1차 자유노조전국대회에 관한 방송보도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노조의 야누츠·오니츠키에비츠대변인은 협상가를 위해 중앙관청에 도착한후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 자유노조로서는 이번 협상에 전혀 기대하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中性子彈반대 女性시가행진 레이건 行政府의 中性子彈 생산결정에항의하는 約7백명의 女性들이 코펜하겐에서 파리에이르는 1천1백22km를행진, 平和시위를 벌이고있다. 【키스톤=聯】

蘇艦隊, 波近海서 기동훈련再開

【킬(西獨)28日AP=聯】 지난 7월말이래 발트해로 집결한 약1백척의 대규모 소련함대가 28일 폴란드근해 그다니스크만에서 기동훈련을 재개했다고 킬의 서독해군사령부가 밝혔다.

南阿共규탄에 異見
유엔安保理

【유엔본부29日AP=聯】 앙골라사태를 논의하고있는 유엔안보리의 15개회원국은 남아공군의 즉각철수요구에는 전반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남아공의 군사행동에 대한 규탄문제를 둘러싸고 이견해소에 난항이 예상된다.

美核打擊軍 현대화方案— 레이건, 4週內결정

【워싱턴29日AP=聯】 레이건 미대통령은 앞으로 4주내로 미핵타격군현대화방안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될것이며 레이건대통령의 이같은결정은 앞으로 30년동안 세계 전략균형에 직접적효과를 미치게 될것이라고 백악관관리들과 헨리·캐토 국방성대변인이 29일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같은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의 주요문제들은 ①지난56년 이래 취역해온 B52폭격기를 퇴역시키게될 대체기종의 선정과 ②새로운 MX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배치방법이다. MX미사일은 소련내 10개 목표물들을 완전 파괴시킬수 있는 10개의 핵탄두를 갖춘 길이 21m짜리 로키트이다.

MX미사일배치방법에 대한 결정은 금년여름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배치방법검토를 위임한 전문가집단에 견해차가 벌어짐으로써 연기된바 있다.

이 전문가들중 일부는 또 비행물체를 적의 레이다망에 사실상 거의 탐지당하지않게하는 이른바 「스텔스」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새로운 비행기를 B52의 대체기종으로 선택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反越 3者會談개최
週初 싱가포르…共同戰線결성 論議

【싱가포르29日聯=聯】 헹·삼린 친베트남 캄보디아정권에 대항하는 노로돔·시아누크 전국가주석등 3개캄보디아저항세력지도자들이 이번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갖고 베트남의 캄보디아무력개입에 대항하기위한 공동전선 결성문제를논의한다고싱가포르정부관리들이 29일말했다.

이관리들은 이 3자회담이 오는9월2일부터 5일간 계속되는 시아누크공의 싱가포르공식방문기간 동안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게릴라단체를 이끌고있는 크메르·루지지도자 키우·삼판과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KPNLF) 지도자 손·산전수상과 만날것이라고밝혔다.

中共, 核潛艦 이미就役
홍콩紙보도 試驗가동후 海軍훈련참가

【홍콩29日AP=聯】 중공은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 시험가동을 마치고 현재 취역중에 있다고 홍콩의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29일 1면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이 이미 1내지 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있음이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중공해군기동훈련을 다룬 8월초의 인민일보 기사에서 시사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중공해군 기동훈련에 참관한 중공기자들이 작성한 장문의 기사중에 『수십일동안 깊은 바다에 잠수했던 최초의 잠수함이 항해를 마치고 개선했다. 이는 우리의 해군에게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도록 길을 연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중공의 핵잠함보유를 시사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재래식의 디젤추진잠수함으로는 수십일동안 잠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또 이핵잠수함이 중공의 4개함대중 한 함대에 배치됐으며 또다른 핵잠수함이 건조중에 있는것같다고 말했다.

5월 합동기동훈련에서 관측통들은 중공이 지난해 투간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잠수함마저 시험가동했다는것은 중공의 계속적인 잠수함개발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공의 핵추진잠수함의 제1차 시험가동이 수행된후 1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공함대의 기동력을 확대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말했다.

日, 廣域해상정찰體制구축
最新銳機·순시선 導入배치등 계획

【東京29日聯=聯】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앞으로 7년간에 걸쳐 총4억5천3백만달러의 경비를 투입, 정찰수역을 연안으로부터 1천9백60km 떨어진 태평양해상까지 확대하는 광역해상정찰체제의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정찰반경의 대폭확대를 위해 헬리콥터를 적재하는 최신형 순시선 7척과 항공기 21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장거리 항속능력을 가진 3대의 항공기가 배치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헬리콥터 적재순시선 4척을 포함한 3백43척의 선박과 항공기53대를 보유하고있는 해상보안청은 또 방위청, 미해안경비대등 유관기구와의 정보교환체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럼비아 發射연기

【워싱턴28日AP=聯】 제2차 우주여행을 위한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발사날짜가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오는9월30일에서 10월9일로 연기됐다고 美항공우주국(나사)이 28일 발표했다.

콩코드機 中止검토
佛, 연료비앙등

【파리28日聯=聯】 프랑스는 연료비앙등등으로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있는 초음속제트여객기 콩코드의 운항중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28일 엘리제궁 측근소식통이 전했다.

레이다網·對空시설焦土化
南阿共, 앙골라領內진격서

【오사카티(나미비아)29日AP=聯】 남아공군은 앙골라영토깊숙이 진격해서 레이다망과 대공시설을 초토화시키고 공격사 백명을 사살했다고 29일 남아공군의 북부사령관이 말했다. 롤프·바메노 준장은 남아공군이 앙골라군및 쿠바인게릴라 ... 앙골라영내 1백km까지 진격, 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의 게릴라기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메아리 — 秋夕 보너스

내일 하루만 지나면 8월의 캘린더는 휴지처럼 찢겨 나간다. 「1일時시한」의 달력을 다시 보니 올해 8월은 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열흘쯤 지나면 백로, 그 나흘뒤가 추석, 그리고 9월23일은 추분으로 秋色은 점점 짙어간다. 올해 8월이면 모두가 한가위를 생각한다.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명절이기 때문이다.

유별나게 더웠다고 느껴졌던 지난여름엔 피서인파도 사상최고였다고 한다. 延 3천5백만명이 산과 바다를 찾았다. 썰물처럼 인파가 빠진 피서지는 지금 썰렁하기만 하다.

계절감각에만 민감하고 앞서 가는곳은 백화점이다. 「여름피서용품대매」가 어느새 「추석대특매」로 손님을 부른다. 백화점상혼의 재간이 미처 빛도 바래기전에 벌써 「추석대」 하루 이틀새 각신문은 큰 기업들의 추석보너스 계획을 보도하고 있다. 한결같이 「작년수준」이다. 해마다 계속되는 이수준은 올해도 別無異狀인 셈이다.

보너스는 원래 봉급을 열어 보기전엔 그 액수를 알수없는것이었다. 라틴어에 어원을 둔 보너스(BONUS)는 「좋은것」이라는 뜻으로 그저받아 즐거운것이었다. 이것이 대중화되어 액수도 미리 정해지고 월급과 거의 동일시하게 되었다.

샐러리맨에게 보너스라는 名目으로 정례을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정도다. 선진산업국에선 대체로 공로보상과 장려의 뜻으로 봉급에 가산된다.

일본의 어느 은행은 매년 보너스의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보너스지출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축, 소비, 차입금반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혼자의 씀씀이이고 미혼자는 레저용품 구입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보너스 용도는 확실히 조사된것이 없으나 대개 가계적자의 보충, 특히 교육비로 쓰여지는 것 같다. 우리가받는보너스는 결과적으로 생활보조나 後貨金의 성격이 강하다.

매년 비슷한 「작년수준」만으론 저축의 여력이 생길 수 없다. 더구나 보너스 세금의 중압은 「좋은 것」의 기쁨을 거의 반감시키고 만다.

보너스의 씀씀이도 「알뜰」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社會黨정권 終末그린 佛에 異色베스트셀러
노스트라다무스豫言해석版 出版

【파리AP=聯】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 작년에 발간된 또 한권의 책이 사회당정권의 종말을그려 프랑스에서 새삼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회당정권의 운명을 어느 해석서보다도 실감있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제약회사중역인 장·샤를·드·퐁브륀이 쓴 「史家이며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문제의책이다. 당초에는 2만내지 3만권을 발행할계획이었으나 사회당정권이 들어선후 이 21만부가 팔려나갔고 4만부를 더 찍을 것이라한다.

드·퐁브륀은 고대 프랑스어로쓰여진 난해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쉽게 풀어 종말의날을 묘사하고 있다.

소련과 아랍군대가 연맹을 맺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지중해 해안에상륙, 유럽과 전쟁을 벌인다. 파리는 폐허가되고 敎皇은 로마를 탈주한다. 교황은 그해 12월13일 프랑스 미공에서 살해된다. 서독도 침공을 당한다. 그러나 소련-아랍 연맹의 유럽점령군은 미국의지원을 받는 프랑스·스페인 연합군대에 의해 축출된다.

프랑스에는 부르봉王朝가 선다. 소련-아랍연맹군을 축출한 부르봉家출신의 연합군대장이 프랑스王으로 군림하게된다.

이런 줄거리는 지금부터 4백25년전 중세 프랑스를 살다간 의사이자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미셸·드·노스트라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예언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같은 일들이 20세기의 얼마남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일어난다고 점쳤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점령군이 패퇴한 유럽에는 평화가 다시 회복될 것이나 그것은 잠시, 지구는 1999년7월 최후의날을 맞게될 것이라고 末世를 예언하고있다.

◇베스트셀러를 읽는 미테랑

蘇·아랍軍의 유럽侵攻 묘사
會社重役이 써 21萬部나가

사회주의자로 대통령이된 미테랑도 이 베스트셀러의 독자중의 한사람이라고 전해진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980년에 장미꽃(사회당의 상징)이 핀다」는 말로 프랑스사회당의 집권을 점쳐놓았다.

「사회당집권후의 프랑스에는 대중의 피가 흐를것이다. 드골이 세운 제5공화국은 1983년 아니면 84년에 망한다」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한 이책이 걷잡지 못한 속도로 대중속에 파고들자 끝내 미테랑자신도 뭔가 입을 열지 않을 수없게 됐다.

최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테랑은 「그책이 내장래를 암울하게 기록해놓은 것 같다」고 태연하게 말했으나 결코 기분좋은 표정은 아니었다고 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의 해석은 갈수록 末世의 느낌을 짙게 한다.

「페르시아만에도 혁명부정, 기근, 전쟁이 끊이지않는다. 드디어 종교적 열광자들이 왕을 배반한다. 왕국은 먼곳에 있는 예언자에 의해 종말을 고한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호메이니의 승리를 이렇게 예언해주었다고 말하는 베스트셀러 저자 드·퐁브륀은 소련은 중동과 전쟁을 벌인다. 앞으로 5년후에 중동에 大戰이 터진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종교인 처형이 벌어질것이다. 일본 관동지방은 바닷속에 함몰한다.

베스트셀러 저자 드·퐁브륀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권위있는 것이라고 역설, 현대인류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中世이후 男性優位 상징 「명예殺人·賠償결혼」 추방
伊, 전근대적 法條項 폐지로

【로마27日=柳錫悅통신원】 「간통을 저지르거나 정조를 잃은 부인, 딸, 누이등을 본인과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살해한자는 일반 살인죄에 준하지않고 3~7년의 금고형에 처한다」 이탈리아 형법 5백87條의 법조항이다.

일명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명예범죄」라 일컬어지는 이범죄행위는 중세기부터 이탈리아남성들의 전유물로서 남성우월사상의 상징이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가문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는 살인도 타당하다는 그릇된 편견속에서 명예처지는 그악명을 떨쳐왔다.

지난7월말 이탈리아상원이 이시대착오적인 형법 5백87條를 폐지함으로써 …지고 불리던 살인행위는 더이상 관대한 처벌을 받지못하고 일반살인범과같은 취급을받게됐다.

명예범죄의 마지막재판은 지난3월17일 시칠리아섬의 팔레르모市법정에서 있었다. 부인간통현장을 목격하고 부인과 정부를권총으로살해한 피고인 살바토레·비트라노에게 5년4월의 가벼운 형이 언도되었다.

◇落胎자유를 지지하는 한 여성데모대원이 모성애를 상징하는 8개의 인형을 가슴에달고 탬버린을치며 로마에서 시위하고있다. 【AP】

姦通女人殺害 일반犯罪로
女權신장도움…成果는의문

현법 5백87條와함께 「배상결혼」에 관한 법조항도 삭제되었다.

배상결혼이란 원하지않는 남성일지라도 울며겨자먹기로 해야만하는 결혼을 말한다.

즉 원하지않는남성에 의해 순결을 빼앗긴 여성은 가문과 주위사람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남성과 결혼을 해야만하는 비인도적인 범죄조항이다.

배상결혼조항은 결혼을 위해 여성의 순결을 빼은 남성은 범법자의 취급을받지않는다고 명시하고있다.

64년 시칠리아섬 알카모市에선 후랑카·비오라라는 처녀가 한남성에게 순결을 짓밟힌후 그남성과 결혼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센세이션한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이탈리아 여성해방운동(여권운동)의 상징과 효시가 되기도했다.

60년 이탈리아 영화계의 거장 피에트로·제르미가 연출한 「이탈리아식 이혼」이란 영화는 바로 명예범죄를 풍자한 작품으로 많은화제를 일으켰었다.

형법5백87條와 배상결혼조항의 폐지를 오랫동안 내려온 비인도적이고 전근대적 관습이 당장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南部이탈리아 지방에서는 많은시간이 필요할것같다.

海外토픽

豪華목장선물 거절
★포르티요 멕시코대통령

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대통령은 최근 1백47에이커에달하는 목장을 선물로 주겠다는 호르헤·히메네스·칸투 멕시코주지사의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심, 이뜻을 한신문에보낸 공개서한에서 분명히 했다고.

그는 그가 대통령임기를 마친후 멕시코 시티 남방80km의 테난싱고의 호화목장을선사하겠다는 멕시코 주지사의 제의에대해 『이목장을 갖고 싶은 유혹은 대단하나 장래 목장주로서 느끼게될지도 모를 깊은 슬픔을 감안하여 이 선물을 받지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UPI】

巨物간첩 交換검토
★西獨 來週중에 最終決斷

빌리·브란트 前서독수상의 측근 보좌관으로 재직시 동독을위한 스파이활동이 발각돼 결국 브란트수상의 퇴진을 몰아왔던 거물간첩 귄터·기욤과 동독에 억류돼있는 서방측 첩자들을 교환하는 문제가 서독정부고위당국자들간에 신중히 검토되고있다고.

서독의 일간 빌트지보도에 따르면 헬무트·슈미트수상이 휴가를 마치고 내주중 귀임하는대로 이 문제에 관한 최종결단을 내릴것이라는데 현재 문제의 인물인 기욤은 75년 1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8년징역을 선고받았던 그의 처는 앞서 교환석방된바있다. 【본=AP】

◇「미스인터내셔널」參加중인 朴賢珠양
東京에서 개최되고 있는미스·인터내셔널콘테스트에 韓國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미스·코리아 朴賢珠양(왼쪽)이 미스·이탈리아, 미스·타이티등과 밝은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있다. 【東京29日AP=聯】

男子에만 居處제공
★뉴욕無住宅市民들

뉴욕시당국은 약3만명에 달하는 무주택시민들중 남자들에한해 거처를 제공키로했다고.

상당수가 주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무주택시민들은 뉴욕시내 거리에서 노숙을 해왔는데 그들중 남자들이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제기, 거처를 제공해줄것을 요구한데대해 시당국은 재판에의한 해결대신 쌍방의합의에따라 그같이결정한것. 【뉴욕=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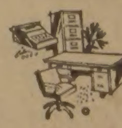
오늘의 歷史 <30일>

▲제물포조약 조인	(1882)
▲맥아더將軍, 日本에 進駐	(1945)
▲全國에 뇌염 발생, 死亡624명	(1958)
▲蘇, 核實驗 再開를 발표	(1961)
▲南北赤1차本會談 평양서 개최	(1972)
▲漁船 신진號 東海서 북괴에 납치	(1976)
▲부산서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 개막, 韓國우승	(197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 각종 종이 테이프
●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532-0111, 259-5820(R)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적 중국음식 뱅킷. 파티에 남아서 위하는 내로 써위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㉞

"한국은 나의 祖國"…獨立애쓴 恩人

韓國史 펴내고 貞洞서 育英사업도

호머·B·헐버트博士

歐美委員部시절, 평생 잊을수 없는 碧眼의 老賓客이 우리를 자주 찾아주었다. 그는 우리를 만날 때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독립을 역설하고는 우리를 격려했다. 호머·B·헐버트박사.

1929년께다. 백발에 눈빛이 炯炯한 미국노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난 그가 유명한 헐버트박사인 줄은 미처 몰랐다. 소년시절부터 많이 들어왔고 李承晩박사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또 책을 통해 박사를 알고있었지만 그를 워싱턴에서 만날 줄은 뜻밖이었다.

헐버트박사는 늘 한국을 「나의 조국」이라고 불렀다. 그는 평생 한국을 위해 살다간 우리민족의 고귀한 恩人이자 친구였다.

헐버트박사가 1905년에 직접 써서 출판한 韓國史(The Passing Of Korea)는 한국을 歐美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린 귀중한 교본이었다. 史學者이자 言語학자인 헐버트박사가 5년간 心血을 기울여 집필한 韓國史는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값진 資産으로 기리 남을 것이다.

헐버트박사는 美미들버리대학장의 둘째아들로, 1886년 교육선교사로 서울에 왔다. 당시 皇室이 푸트駐韓美공사를 통해 美국무장관 베야드에게 교사 파견을 요청하자 국무성이 헐버트박사의 아버지 칼비어·B·헐버트학장에게 特請을 해 헐버트박사가 오게됐던것이다.

헐버트박사는 貞洞의 대법원자리에 育英公院을 창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해 가르쳤는데 1기생에는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헐버트박사는 [illegible] 英字誌「코리아·레뷰」를 발행, 한국의 독립정신을 앙양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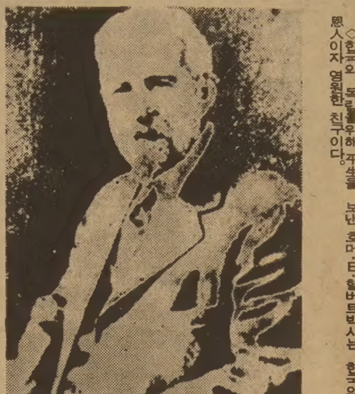
1905년 露日전쟁이 끝나면서 日本의 對韓侵占야욕이 노골화하고 포츠머드조약이후 한국에대한 보호문제가 표면화하자 高宗은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 헐버트박사를 몰래 불러들여 親書를 전했다. 헐버트박사는 高宗의 親書를 가지고 미국에 密派돼 백악관으로 디어도·루스벨트 대통령을 찾아갔으나 루스벨트는 이를 外面했다. 국무성도 마찬가지였다. 헐버트박사가 다시 백악관으로 찾아가 항의하니 비서관이 『우리는 그 친서내용을 알고있으니 국무성으로 가보라』고 했다. 日帝의 간접공작까지 곁들인 某種의 黑幕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南下를 저지한다는 구실아래 일본편에 서서 일본의 한국침략과 중국대륙에의 진출을 양해하고 있었다. 양해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포츠머드회담에 앞서 이미 일본과 비밀협상을 진행, 일본의 한국에대한 保護權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헐버트박사가 密派되기 前 미국에서는 韓人대표로 뽑힌 尹炳求, 李承晩 두대표가 루스벨트를 찾아가 청원을 했으나 이미 美·日간에 비밀협상이 성립되고있던 때였다. 훗날 李박사는 프린스턴大은사인 윌슨 대통령을 찾아가 간절한 독립청원을 했으나 역시 헛된 일이었다.

알고보면 우리를 흥분시킨 윌슨이 주창했던 民族自決主義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1차대전후 歐洲질서를 再編안정시키기위한 外交用인 것이다. 헐버트박사는 歐美위원부에서 서너차례 만났다. 그는 自國이해에 눈이 어두운 국제정치의 냉혹감을 말하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哀痛해했다.

헐버트박사는 헤이그密使 사건등 高宗을도와 배후에서 독립을 위한 일을 많이했다. 그는 高宗을 높이 평가했다. 仁慈하고 寬厚한 인품을 지닌 不運의 황제이자 典型的인 한국인이라고했다. 高宗도 숱한 外人중에서 그를 가장 아꼈으며 헐버트박사는 이같은 은총에 감격, 한국을 위한 일이라면 늘 앞장섰다.


◇한국의 독립을위해 平生을 보낸 호머·B·헐버트박사는 한국의 恩人이자 영원한 친구이다。

헐버트박사는 韓日合邦뒤 본국에 돌아갔으나 해방뒤 다시 한국에 돌아올때까지 한국만을 위해 一生을 보냈다. 가산을 다털어 스스로 순회강연을 하면서 日本의 不法침략을 지적한뒤 한국의 독립을 외쳤고 늘 한국의 독립을위해 기도를했다.

헐버트박사가 歐美위원부를 찾아왔을때도 그의 손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원고뭉치가 들려있었다. 난 그를 모시고 며칠 기거를 하면서 그의 사상, 철학을 듣기도했다.

8·15光復이 되고 「故鄕」한국에 돌아온 헐버트박사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23세의 나이로 舊韓末에 한국을 찾은 박사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헐버트박사는 李承晩박사의 建國을 찬양하면서도 역사의 교훈을 잊지않았다. 創業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을 견실하게 끌어올리는것이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

헐버트박사는 역사상 創業主가곧 中興之主가 될수는 없다고했다. 그는 李박사의 구실은 바로 創業之主로서의 할 일이라고 했다.

헐버트박사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높이 지적했다. 우리민족의 인내성과 順從性을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민족성이 결점이 있다고 말했다. 舊韓末의 風雲期에 나라가 기우는데도 헐뜯고 모함하던 비극적 정치상황을 그는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하고있었다.

그는 6·25사변 전해에 86세로 이땅에서 숨을 거두고 漢江邊의 楊花津外人묘지에 고이 묻혔다.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그의 墓碑銘에서 분명히 읽을수있다. 「나는 英國 웨스트민스터大寺院에 묻히기보다 한국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원한 벗인 헐버트박사를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觀光地 50곳개발

大都市주변 내년부터 5百億원投入

국민관광지가 내년부터 86년까지 크게 개발된다.

교통부는 29일 국민관광인구의 증가에 따른 관광지개발을 적극추진하기위해 82년부터 수도권및대도시주변 50개소에 4백91억원을들여 도시서민들을 위한 관광지를 개발키로계획을확정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교통부, 건설부, 문공부등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있는 현행 국민관광지개발체제를 수정, 관광주무부서가 각기관별 계획및 집행에대해 조정시행토록하고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제관광공사의 역할및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관광지의개발도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우되 ▲80년대상반기까지의 개발은 정부주도로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며 ▲80년대하반기까지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日本式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는한편 ▲90년대이후는 민간주도및 정부지원형식의 西歐式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리는 민간이 전적으로 맡는 3단계로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통부는 국민관광을 국제관광과 동일한 차원에서 조화있게 추진하기위해 내년에 국제관광공사법을 개정, 「국제관광공사」를 「관광진흥공사」로 명칭을바꾸고 국민관광부를 이미 공사안에 신설했다.

또 공사의 경영개선과 체질강화를위해 공사의 수입을 최대로 늘리고 慶州조선호텔등 10개 출자회사에 공사가 투자한 1백90억원을 빠른 시일안에 회수하는한편 자회사인 慶州, 濟州관광개발공사를 지사(支社)화할것을 검토키로했다.

그런데 국민관광인구는 지난71년에 4천2백만명에서 금년에는 1억4백만명으로 늘어났고 오는91년도에는 1억9천6백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호텔暴力輩」 2명구속

춤추러온女人 위협 돈뜯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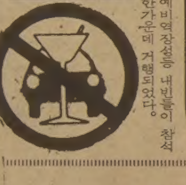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호텔 나이트클럽에서만난 여자를 여관으로 끌고가 욕을 보인뒤 폭력으로 위협, 돈을빼앗아온 광화문 1·2·3파두목 金學泰(20·주거부정·폭력전과 3범)와 김모군(19·주거부정·폭력전과 2범)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사사파 두목 朴正吉(20)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폭력배들은 지난달 20일 새벽1시께 中區奬忠洞 호텔신라나이트클럽에 놀러온 미8군무용수 박모양(20·성북구 안암동)등 4명을 江南區 瑞草洞 ○목마호텔로 끌고가 욕을보이고 주먹과 깨진 유리컵으로 마구 때리며 너희들의 직장을 알고 있으니 돈을 빌어오지 않으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지금까지 여관에서 동거해오면서 모두 4백여만원을 갈취,유흥비등으로 써왔다는것.

◇자신이 가르치던 육사생도들을 고별사열하는 白石柱대장。왼쪽은 金復東육사교장。

白石柱대장 어제 轉役式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白石柱대장의 전역식이 29일 오전11시 泰陵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周永福국방부장관, 李熺性육군참모총장등 군주요지휘관과 고위장성、예비역장성등 내빈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되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인등 移民확대 加장관 필요성認定

【터론토28日=韓】캐나다정부의 한 주요각료는 28일 한국인등 외국인의 캐나다이민을 확대하기위해 캐나다의관계이민법규를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제임즈·플레밍 소수민족문화상은 이날 캐나다를방문중인 李○玩의원(民正)등5명의 한국국회의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민허용문호를 숙련자들과 가족초청의 경우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현 캐나다의 이민법규때문에 캐나다이민을 희망하는 많은한국인들의 캐나다정착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캐나다이민 확대방안으로 이민기회가 저숙련및 미숙련자들에게도 허용되도록 이민법규가 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앙칼진 금속성 女子목소리에 DMZ의 정적이 깨뜨려진다

北傀、對南放送재개1年

安定파괴 비방血眼

"金日成은 풀로 떡빚고 모래로 밥짓고 湖南엔 餓死者"

【중부전선○○부대=申鉉기자】 잠자리떼가 한가로이 노니는 초가을 비무장지대의 하늘은 맑기만했다。

중부전선○○부대 최전방관측소。

경계초소의 병사들은 한결같이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숙한 표정으로 직선거리 약1천3백m앞 지호지간(指呼之間)의 북괴군GP를 노려보고있다。

하오5시。거의 매시간빠짐없이 자행된다는 북괴군초소의 대형확성기에서 쏟아내는 민요가락이 DMZ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다。

북한사회의 자찬을 내용으로한 대남방송이 여자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계속되더니 다시 긴 민요가락으로 이어진다。대남방송의 민요는 가락은 흥겨운데도 앙칼진 금속성의 가수성대에다 「어버이수령」운운하는 가사탓으로 부드러운맛이 없고 섬뜩한 느낌을 갖게했다。

초소속의 林東光상병(23·서울)은 『지금방송은 가장 점잖은 내용』이라면서 『대남비방이 나날이 악랄한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들면 이날아침방송에선 『남조선의 고위층이란자들은 갑자기 배에 기름이 끼고 몸이 불어나 옷을 자주 마춰입어야한다。이것은 뇌물을 긁어모으고 착취하기때문』이라며 떠들어대는가 하면 『아무개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무조건 처형했다』는등 악의에 찬 모함을 예사로한다는것이다。

또 이들의 金日成·金正日부자 찬양또한 해괴한것이어서 북한지역에 최근감재배가 시작된듯『金日成수령의 은혜로 감나무에감이 열렸다』고 방송을 하기도하고 『수령님은 항일 빨치산투쟁당시 풀로 떡을빚고 모래로 밥을짓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냈다』는배꼽을 잡고웃을 내용들이수없이 많다는것이 병사들의 얘기다。

그런가하면 북괴는 「다향살이」「눈물젖은 두만강」「비내리는 고모령」등 우리 유행가락에 厭戰感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를 붙여 심야경계근무에 나서는 국군병사들을 짜증나게 하기도한다。

또 방송내용가운데는 湖南지방엔 가뭄으로 농사를 못짓고 끼니를 못때워 죽어가는 주민이 무수히많다』는등 「남조선 식」도 상당부분이 끼어있기도 했다。

7·4공동성명에 따라 지난72년11월11일을기해 상호비방을 않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북괴가 비무장지대의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한것이 오는9월4일로 꼭1년을 맞는다。

그동안 북괴는 군사정전위를 통한 유엔군의 항의와 서울측 남북조절위 대표의 중지촉구성명(81년7월4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방송횟수를 늘리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비무장지대 북쪽의 확성기시설은 모두 91개가 설치되고 이중 71개가 운용되고있으며 하루평균 6백50여회의 방송을 하고있고 방송내용도 북괴자찬(38%)보다 대남비방(62%)이 더 많다。

국방부관계자는 정전협정과 7·4공동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북괴 대남비방송의 계속에도 대화를 촉구하고 국군은 단1건의 대응비방방송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북괴가 비방방송을 계속하는 저의에 대해 ▲남한의 안정기조를 파괴하고 휴전선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金日成부자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위한 북괴군 대내세뇌효과 ▲국군장병의 厭戰사상을 유도하기위한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국방부관계자는 또 북괴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정전협정과 7·4공동성명정신을 준수하는 민족적입장으로 돌아서서 비방송을 중지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北傀의 대형 확성기 중부전선 휴전선너머의 북괴 대형확성기。3m정방형의 철판상자속에 25개의 스피커가 들어있다。오른쪽 나무사이로 토치카형의 북괴군 GP가 보인다。

한국일보 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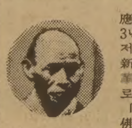
雜草·한그루

朴文在

하늘은 불볕.
기상은 연일 低氣壓.
사는 재미, 감동하나없더니,
참 희한한것 다 보겠네。
딴딴한 콘크리트 비집는
그固執。
잡초 한 그루。
눈치로 延命하는 人間들
보라는듯
우뚝 서 있네。
우뚝 서 있네。

文豪의 名言

韓龍雲 <1879~1944>



詩人 僧侶 獨立運動家。應俊의아들 洪城출신。1913년 梵魚寺에서 佛敎大典저술。3·1운동 民族代表。新幹會 京城支會長。佛敎革新과 作品활동중 中風으로 사망。「님의 沈默」「朝鮮獨立의 書」「朝鮮佛敎 維新論」등。

國家는 外侵보다 內部崩壞로 亡한다

古今東西를 막론, 國家의 興亡은 일조일석에 되는것이 아니요, 어떠한 나라든지 제가 스스로 崩壞하는것이지 남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할수는 없는 것이다。

× × ×

卍海 韓龍雲은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 독립투쟁사에, 불교사에, 문학사에, 그리고 사상사에 영원히 남을 자취와 영향을 남겼다。진리를 터득하고 몸소 실천한 사람은 진리와 더불어 時空을 넘어 길이 삶을 증명한다。「만해는 중이다。그러나 중이 되려고 된것 아니다。만일 투쟁을 하기위해서였다。만해는 시인이다。하지만 시인이 부러워 시인이 된것 아니다。만해는 웅변가다。그저 말을 뽐낸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피로 토했을뿐이다」(趙宗玄)

만해의 문학 특히 〈님의 침묵〉은 자유분방한 사상의 농도가 세련된 言語를통해 共感의 정서로 승화된 감동어린 순수문학이다。

그는 수많은 시조 소설 수필 행문 漢詩등을 썼으나 그중 「님의 침묵」은 대표작으로 이미 정평이 났다。

『「님의 침묵」 한권만으로 선생의 시는 현대시의 고전이 됐다…。그 세대 그 연령의 시인으로 후세에 남을 작품을 쓴이는 오직 선생뿐이다』(趙芝薰)

『「님의 沈默」… 이 시집은 장차 이 나라의 문학뿐아니라 사상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것이다』(송욱)

그럼 만해 詩文學의 가장 뚜렷한 핵심이 되는 「님」은 과연 누구일까。

『선생의 평생의 님은 民族이다』(조지훈)

『님이란 애인이요, 불교의 진리 그 자체이며, 한국사람전체를 뜻한다。이 시집의 主題는 이나라에 사는 모든사람이다。衆生이다』(송욱)

이처럼 「님」에대한 문제는 좀처럼 귀일되지 아니한채 앞으로도 검토되고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다。어쨌든 그가 갈구하고 절규한 「님」은 과연 무엇일까。

時空에 처해있으면서 또한 시공을 초월하고, 초월했으면서도 항상 처해있는 不生, 不滅의 님, 엄연히 존재하는 그 「님」은 곧 절대적인 「絶對自由」곧 「眞我」이다。

이 「님」이야말로 만해의 말 그대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루운것은 다 님」인것이다。

「구속을 받지않은 님」, 「그림자」가 아닌님, 오직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양」에게 미소를 안겨주고 싶은 것이 만해의 크나큰 정신이요, 주의요, 열렬한 사상이며 悲願이었다。인용은 3·1운동직후 法廷에서의 답변。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필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4-5163 277-28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룡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판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흥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聖經속記錄 정확성높다

考古學界、시나이砂漠~死海 유적조사20년 評價

方舟조각·솔로몬寶庫 발굴

창세기「平野의 도시」는 불로 파괴된 흔적

소돔과 고모라 발견 가능성 커져

聖經속의 기록은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또 믿을수있는것일까。이같은 문제를 놓고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사이에 끝임없는 논쟁이 되풀이돼왔으며 이논쟁의 결말은 고고학계의 최대의 숙제로 쉽게 풀리지않으리라고 여겨졌었다。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성경속의 신비를 캐기위해 지난20년전부터 시나이 사막에서부터 死海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실시, 최근에 이르러 개괄적인 조사를 마쳤는데 결과는 놀라웁게도 성경속의 기록이 대부분학자들이 생각했던것보다도 훨씬 역사적정확성을 띠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는 최근號에서 지난 20년간의 발굴과정을 평가, 『지금까지의 발굴결과로 보아 기독교나 유대교의 근원에대한 생각을 바꾸어야할것이며 특히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발굴성과를 결론짓고있다。

특히 최근에 실시된 발굴에서는 솔로몬王의 寶庫, 出애굽기에 나타난 대재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했던 聖約의 方舟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소돔과 고모라등 저주받은 두도시의 발굴가능성마저 높아져 세계고고학계의 관심이 총집중되고있다。그러나 이같은 유물들은 앞으로의 확인과정에서의 새로운 논쟁점으로 부각될여지가있으나 우선은 성경의기록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들로 평가되고있다。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가 전하는 발굴의 현장을 찾아가보자。

금년여름 세계의 유수한 학자12명으로 구성된 발굴대는 聖地예루살렘지역에서 60개소를 선정, 발굴에착수했다。땅속에 묻혀있다가 수10세기만에 햇볕을 본 고대유물들은 성경에대한 새로운 해석을내려줄 귀중한것들로서, 최근까지도 학자들사이에선 전설상의 도시로서만 가볍게취급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발굴가능성이 갑자기 증대됐다。

미국의 고고인류학자 월터 E·라스트교수와 R·토머스 소브교수는 「平野의 도시」3곳과 이는 創世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밖에 조그만 도시를 최근 발굴했다。이들도시들은 성경에서의 지적대로 死海에서 2~3마일안의 거리에서 발굴됐는데 이들 도시를 가운데 적어도 3개소는 불로 파괴당한것으로 보였다。연대측정결과 성경의 시사와같은 B.C2300~2400년께에 멸망당한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들도시들은 성경에선 하느님의 진노로 홍수때문에 멸망당한것으로 되어있다。

래스트교수와 소브교수는 平野의 도시발굴로보아 소돔과 고모라의 발견가능성은한층 높아졌다고 말하고있다。

래스트와 소브 교수의 이번발굴에 가장 기쁨을 표하고있는 이는 이탈리아고고인류학자 조바니니·페티나토교수다。그는 최근『소돔과 고모라는 실존해있었다』고 주장, 각계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왔었다。

페티나토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76년 시리아의 4천5백년이나된 古都 에블라에서 발견된 1만7천장의설형문자板에 근거하는데 한학자는 이설형문자板발견이 성경에관한한 일찌기 발견된그 어느 유물보다 가장값진것이라고 평가했다。

페티나토 교수의 판독에의하면 그설형문자판의 일부에는 성경속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의 商去來관계의 기록이 씌어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 판독된 다른 문자판에는 헤브류인들의 기적과같은 이집트탈출내용이 적혀있다는것。이문자판에의하면 주로 이집트족의 얘기를 적고있는데 이집트王 파라오가『다루기 어려운 아시아계 移民들에게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했으며 그들이 홍수로 휩쓸려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적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이집트학자인 한스·피디크교수(美 존스홉킨스大)는 설형문자板에서 또다른 발견을 지적했다。즉 出애굽보다 2백년이나 빠른 BC1477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묘사돼있는데 이것은 지중해섬의 화산폭발이 있었다는것이다。피디크교수는 성경속에나타난 물기둥과 불기둥이 파라오王의군대를 격파한것은 아마 이화산폭발의결과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지질조사대는 3천년전 솔로몬王의 寶庫로추정되는 폐허가된 한광산을 발굴했다。이광산은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내에 있었는데 고대엔 이스라엘로가는 貿易路에 위치해 있었다。성경에서는 이광산에서 1천86탈런트(古代헤브류의무게단위·31톤 상당)의 금을 생산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질조사대는 이광산이 과거에 풍부한금을 함유하고 있었던것으로 밝혀냈다。

또한「노아의 方舟」와 비슷한것으로 보이는 나무조각들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됐으며 이러한 유물들은 모두 성경상의 기록을 뒷받침하는것들로 평가돼 주목을끌었다。

시카고 대학의 스태거교수는『中東에서의 발굴이 완료된다면 우리는 성경속에서의 기간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다 더많은 사건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같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발굴에대한 낙관적인 전망을표했다。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

석인 발굴작업 … 고있는 예루살렘일대의 유적지。수십세기만에 햇볕을본 유물들은 … 에대한 새로운「빛」을 던져주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中東취업 미끼

9명피해、2百60여萬원 뜯겨

서울城北경찰서는 29일 鄭世榮씨(40·서울城北區安岩洞3가 137의9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鄭씨는 지난2월18일 서울東大門區新設洞 여신다방에서 황건수씨(37·東大門區 踏十里2洞39의103)에게『중동에 취업시켜주겠다』고속여 교제비조로 10만원을 받아 가로챈것을비롯, 지금까지 9명으로부터 2백6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것。또 서울城東경찰서도 鄭德敎씨(28·恩平區 ?山洞200의27)를 갈은혐의로 구속했는데 鄭씨는 지난5월1일 中區小公洞 모다방에서 장영훈씨(44·城南市上垈院洞351의1)에게『뉴기니아에 취업시켜준다』고속여 90만원을받은혐의다。

대통령상 梁基哲군

제2海士 졸업식

해군제2사관학교 제5기 임관식이 29일 상오11시 제2사관학교충무광장에서 李銀秀해군참모총장등 군고위장성과 내빈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에서 梁基哲소위(22·부산大東高출·사진)가 대통령상을, 李長春소위(21)가국무총리상을받았다。

濟州·全南北일원 豪雨 주의보

중앙관상대는 29일 하오8시를기해제주도와전남북일원에각각호우주의보를내렸다。예상강우량은 80~1백90㎜。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流星의 賦 <171>

李炳注作 李友範畫

山空花自紅 ㉑

『그러니까 나으리께선 여립을 도와주려고 그곳에 나와 계신겁니까』

계남이 약간 불쾌하다는 투로 물었다。

『여립을 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네를 도우기 위해서였다』

이영의 덤덤한 대답이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네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알아 듣겠느냐』

『여립 같은 놈은 죽여 살인자가 되어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여립의 생명과 맞바꾸기엔 자네의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한거다』

『그 대신 율곡선생님의 명예를 지킨 보람은 있지 않겠읍니까』

『율곡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여립을 죽여선 안된다』

『말씀의 뜻을 알아 들을 수가 없읍니다』

이영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마지 못한듯—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자네에게만은 말해 두어야 하겠구나。정여립이 율곡을 훼방한 짓은 율곡을위해 썩 잘된 짓이다』

계남이 어이가 없는 눈초리가 되었다。

이영이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정여립이 율곡의 반대편에 서서 율곡을 욕하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한 십년 후 율곡은 혹시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할 화를 면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점점 기피한 말이었다。부관참시란 사후에 노현(露顯)된 죄로 받는 극형을 말한다。무덤을 파서 관을열고 시신(屍身)을 베는 형벌인 것이다。그런데 어째서 율곡선생이 그런 치욕을 받는단 말인가。

『그 이유를 내가 말하지。똑똑이 들어 둬라』

이영의 이 말에 계남이 긴장했다。

『정여립을 조정에 천거한 것은 율곡이다。그 사실은 알지?』

『압니다。그러니까 그놈을…』

『임금께서는 율곡의 천거를 몇번인가 물리쳤다。그래도 율곡은 강권하다시피 해서 정여립을 천거하는 바람에 임금께선 싫으면서도 여립에게 벼슬을 주었다』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만일 정여립에게 불충(不忠)이 있을경우 어떻게 되겠는가。여립이 율곡의 충실한 제자로 남아있다면 그 불충의 책임이 율곡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

『그렇지 않아도 율곡을 헐뜯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동인(東人)들이 가만 있겠는가』

『……』

『없는 일도 꾸며서 모함하려는 놈들인데 그만한 미끼가 생겼다고하면 기뻐날뛸것이 아닌가』

『……』

『여립에게 내린 형을 율곡에게도 과해야 한다고 서둘지 않겠는가』

『……』

『눈에 보이는 것 같다。정여립이 불충행동(不忠行動)을 하는 날이면 율곡이 생전에 여립을 교사(教唆)한 것이라고 일을 꾸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되옵니다。생각 되옵니다만』

『그러니까 여립을 죽여선 안된다는 거다』

張吉山 (163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一部 四章 彌逆勒謀 (98)

『나 오늘 떠나려네』

여환이 말하자 옥여는 평소처럼 또 농을 던졌다。

『저 중 말하는 것좀보게。가면 가고 오면 오고… 죽으면 죽는게지』

『자네와의 악연이 끊기질 않으니 어쩌나』

『허허 악연이지』

옥여도 소리는 내었으나 웃는 기미는 전혀 없이 진지하게 받았다。여환이 말하였다。

『부탁이 있네。저 원향이가 사선골 보살과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이라、천상 월정사에서 거두어야 할걸세。안무당에게서 내림을 받은 입장이고 보니 자기 소견에도 책임감이 있어서겠고、식구와 살던 곳을 뜨기가 싫겠지。다른데로 가지못하게 만류하고 절 식구로 데리고 있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야』

『이건 언제든 곡 되찾아 갈듯이 얘기하는구먼。옛날에도 자네 이 절 떠나며 어린 원향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옥여의 말에 여환은 머리를 저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네』

『다르기는 뭐…꼭 같지』

『아니야。그때는 아예 정을 끊자는 것이었고 지금은 자네 말처럼 되찾아 가려고 하는걸세』

옥여는 여환의 말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에 씌려나?』

여환은 빙긋이 웃었다。

『장가를 들어야지』

『어…이 중 큰일 났구먼!』

『우리는 부부가 되어야만 하네。전생에 우리는 오누이였는지도 모르지。칠성암에서 함께 살거야。그러나 잊지말게。나는 사음계는 절대로 범하지 않을테니까』

옥여가 말하였다。

『나보구 신부 수행하라구는 않는가?』

『성례란 세속의 일이니 승려가 앞장설 수야 있나』

『까짓거 사음계란 다 무어야。그냥 살게。그렇지만 거사에 방해가 된다면 일찌감치 큰 스님께 말씀드리고 저 멀리 남도나 북관으로 빠져 버리는 것이 나을게야』

옥여는 화내지 않았지만 차갑게 말하였고 여환도 침착하였다。

『더 이상 농하지 말아。원향이는 분명히 영험있는 무당일세。우선 부녀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나는 원향이를 앞세워 장정들을 끌어 모을 수가 있지。그리고 의술도 익히려네。그동안 양주 있으면서 간병도 많이 하였고、사자암 있을 적에 부적도 그려서 쌀 됫박이나 벌어 먹기도 하였지。자네 말처럼 사음계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인가。설령 원향이와 내가 접하여 아이를 낳은들 어떻겠나마는、우리는 서로 그렇게는 되고싶지않네。내생에서는 여염의 부부로 되어 열심히 일하고 서로 아끼며 자식 낳고 살게될지도 모르지』

옥여는 여환의 말을 팔짱을 끼고앉아 말없이 듣기만 하였다。여환이 다시물었다。

『이러한 생각에 티끌만한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음심이 끼어 있다 손치더라도、나는 역시 사문의 길을 갈걸세。자네 두손 말좀 해주어』

옥여가 말하였다。

『언제 데리러 오겠나?』

『글쎄…금년 말 쯤에』

『그런데 큰스님과 나는 여길 떠날지도 몰라。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알고 큰 스님이 아시기를 바라는게 아니든가。이젠 되었어』

두꺼비

안의섭

주간女性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주간女性

巨龜莊

New Management로 의욕적으로
손님들께 봉사
새 매니저 THOMAS CHENG
(프로훼쇼날 매니저 고용, 중국인3명)

—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맛
— 내부수리(테이블, 스테이쥐)
(스폿 · 라이트)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 영업시간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 200대 수용주차장
* 가수와 밴드〈 금, 토, 일〉

민요와 팝송의 가수

박 소 영

(꾀꼬리가수! 미8군무대에서
인기절정이던 박소영 드디어
거구장에 출연)

출연시간 :
금, 토, 일요일(밤 8 : 30~새벽 2 : 00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거구장대표 김선남

開幕경기서 해트트릭

전국中·高축구 金春植(全北體高)수훈 慶旼商 대파

東北·慶熙·通津綜·安養工도 2회전進出

청룡기쟁탈 제36회 전국 중고축구선수권대회가 51개팀(고등부 42·중등부9)이 출전한 가운데 29일 효창운동장서 개막, 첫날 고등부 1회전서 全北體高 東北高 慶熙高 通津綜商 安養工高가 각각 승리를 거두고 2회전에 올랐다. 이대회 결승전은 9월8일 서울운동장서 거행되며 중등부경기는 9월4일 시작된다.

◇고등부 1회전 東北高—高陽綜대전에서 東北FW 李賢哲㊧이 高陽수비진과 볼다툼을 벌이고있다.

全北體는 개막경기서 FW 金春植이 해트 트릭을 기록하는 활약에 힘입어 신예 慶旼商을 4—0으로 대파했으며 東北高는 高陽綜商과 대결, 후반에 접어들어 嚴仁鏞(10분) 李賢哲(15분) 金承春(19분)이 내리 골을성공시켜 3—0으로 완승했다. 慶熙高는 群山第一高와 80분간의 격전끝에 1—1무승부를기록, 승부킥에서 4—2로이겨 1회전 관문을 돌파했다. 安養工은 徽新商를 2—1로 물리쳤다. 全北體의 金春植은 전반21분 慶旼商 페널티에리어 오른쪽정면에서 땅볼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린후 31분과 36분에 연속득점, 개막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만들었다.

◇제1일전적 ▲고등부

전북체고 4(4—0 0—0)0 경민상고
동북고 3(3—0 0—0)0 고양종고
경희고 1(0—1 1—0)1 군산제일고 <승부킥4—2>
통진종고 1(0—1 1—0)1 교신고 <승부킥7—6>
안양공고 2(2—0 0—1)1 교신고

千仁泰、2種目 한국新

峨山旗쟁탈全國水泳 男高平泳1백m·2백m서

千仁泰(포항 수산고)는 금년 처음 창설된 峨山旗쟁탈 전국남녀수영대회첫날 남고 평영1백m와2백m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워, 평영일인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29일 잠실 실내수영장서 막을올린 대회첫날 남고평영2백m서 千仁泰는 2분35초89의 한국신기록을 수립, 종전 한국기록 2분36초84를 0.95초 앞당겼다. 千은 평영1백m서도 1분10초10을기록, 종전 한국기록 1분10초11을 깨뜨렸다. 한편 여고자유형 1백m서 金善姬(이화여고)는 1분3초35(종전 1분4초01)를 마크, 한국 신기록을세웠다.

全南體高 2連霸 學生 레슬링

【春川=聯】제9회 문교부장관기쟁탈전국학생아마레슬링선수권 겸 소년선수권대회 마지막날(29일·春川실내체육관)고등부단체전에서 지난해우승팀인 全南體高가 釜山體高를 누르고 우승, 2연패했다. 소년부단체전에서는 경구중(大邱)이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大阪선발、金融팀에 2連勝

韓日친선野球6차전…하라力投 5—3

日本 오오사까(大阪) 사회인 선발야구팀초청 韓日친선야구대회 6차전이 29일 서울운동장에서 한국 금융선발과의 경기로 벌어져 오오사까 사회인팀은 하라의역투로 5—3으로 승리, 방한전적 3승3패를 마크했으며 금융선발은 2連敗했다. 오오사까선발은 2회초 2死2루에서 금융선발 崔玉圭를 연속3안타로 두들겨3점을 선제한후 3회초 5번 시마다가 좌월 솔로홈런으로 1점, 7회초에 다시 1점을 추가했다. 하라의 스피드볼에 5회까지 무안타로 눌리던 금융선발은 6회말 선두대타 金鍾模가 좌중월 2루타로 첫안타를 뽑은후 7회말에는 金字烈이 좌월 솔로홈런을, 金鍾模는 좌중월2점 홈런을각각 터뜨려 3점을만회했다.

◇6차전
오오사까선발(3승3패) 031 000 100—5
금융선발 000 000 300—3
▲홈런=시마다(3회초) 金字烈(7회말) 金鍾模(7회말·2점)。

申仁浩 고등부1위 全國 學生사이클

【全州=聯】제7회전국학생사이클 종별선수권대회가 28일 群山에서 개막돼 첫날 群山—全州간 왕복85km 도로경기 고등부에서 全羅高 申仁浩(18)가 2시간6분5초73으로 1위를차지했으며 2위는 全羅高 蘇淳明(18), 그리고 3위는 忠北미원고 權五吉(18)이 각각 차지했다.

景福·善一 패권 차지

雙龍旗 고교농구 松都·崇義물리쳐

景福 長身壁쌓고 中央뚫어 91-82

善一 前半막판 戰勢뒤집어 62-55

善一女高와 景福高가 쌍룡기 고교농구대회서 우승을 차지했다. 29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된 대회 최종일 여고부결승전서 善一女高는 金明鉉 李美子의 분전으로 崇義女高를 62—55로 꺾고 우승, 작년에이어 2連覇했다. 남고부 결승전서 장신의 景福高는 투지의 松都高와 접전끝에 金允皓 金容國의 활약으로 91—82로 이겼다. 景福은 금년들어 춘계연맹전 대통령기대회 우승에 이어 3관왕의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68년 이대회서 우승한이래 13년만에 우승을 되찾았다.

◇1대1 攻防戰 여고부 결승전서 善一의 魏明順㊧이 崇義 金銀淑의 슛을 마크하고 있다.

최우수選手에 金允皓·李美子

景福高의 金允皓와 善一女高의 李美子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날 崇義는 鄭明姬가 골밑을 지키고 趙聖淑 金銀淑등이 득점을 올려 초반에 기세좋게 善一을 몰아붙였다. 善一은 李美子가 鄭明姬에 견제당하고 외곽슛이 부진, 崇義의 리드를 저지하지못했다. 그러나 崇義의 趙聖淑이 경기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쳐 퇴장하면서 전세는 급변했다. 崇義는 趙聖淑 대신에 姜貞伊가 들어섰으나 趙만큼 활약하지 못했다. 善一은 金明鉉의 슛이 호조를 보이고 李美子가 골밑서 착실히 어시스트, 전반막판에 전세를 뒤집고 26—24로 앞섰다. 후반서도 善一은 계속 게임의 주도권을 장악, 崇義는 부상당한 趙聖淑을 1분가량 다시 내세웠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62—55로 패했다.

◇최종일결승
▲여고부 선일 62(26—24 36—31)55 숭의여고
▲남고부 경복 91(45—42 46—40)82 송도고

◇개인상 ▲최우수=李美子(선일) 金允皓(경복) ▲미기=金銀淑(숭의) 金順愛(송원) 許畝(용산) 申鍾喆(송도) ▲감투=徐仁淑(성덕여상) 文畝子(수원) 鄭畝載(광신) 金龍鶴(광주)

東京하키大會

코치가 女選手들 때려 한국팀 게임沒收 망신

말聯에 지자 脫衣室로 끌고가

【東京29日=聯】제1회 아시아여자 하키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29일 말레이지아와의 대전도중 코치가 선수들을 스틱으로 구타, 게임을 몰수당했다. 교오또에서 진행중인 이대회에서 이날 현재 4패를 기록, 최하위에 머물고있는 한국팀은 말레이지아에게 전반전을 2—0으로 리드당한후 5분간 휴식시간에들어갔다. 이때 박흥서코치가 선수들을 탈의실로 끌고가 스틱으로 구타했다. 선수들은 울면서 후반경기에 참가하려고 그라운드에돌아왔으나 폭행사실을 중시한 대회본부가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때는 심판장의 재량으로 대처한다』는 대회규정 17조를 적용, 한국팀의 후반전 경기를몰수했다. 그러나 한국팀은 신현각과、박코치가 대회본부에 사과, 30일의 5、6위 순위결정전에는 출전할수 있게됐다. 한국팀 단장 이은호여사는 『선수들에게 기합을 넣는일은 흔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인인 굿다 심판장은 『심판생활을 오래해왔지만 처음보는 불상사』라고 말했다.

國際商事·江原산업 4强에

전국職場人야구

國際商事와 江原産業이 4강에 합류, 결승진출을 다투게됐다. 2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2회회장기쟁탈 전국직장인야구대회 4일째 준준결승에서 國際商事는 大宇實業을 7—2로, 江原産業은 海宇船舶을 16—3으로 각각 제압했다.

◇제4일전적 ▲준준결승
국제상사 000 010 6—7
대우실업 200 000 0—2
강원산업 201 440 5—16
해우선박 000 200 1—3

메르데카蹴球 오늘開幕

11개국참가 韓·말聯·브라질팀 우승후보

【콸라룸푸르29日AP=聯】제25회 메르데카컵 축구대회가 30일 홈팀인 말레이지아와 日本의 경기를 스타트로 개막된다. 이라크 브라질(사웅파울로市 선발) 태국 싱가포르와함께 A조에 소속된 한국은 9월4일 싱가포르와의 첫대전을 비롯, 7일(對브라질) 12일(對이라크) 16일(對태국)에 각각 예선경기를 갖는다.

◇경기일정 ▲30일=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9월1일=뉴질랜드—인도、싱가포르—태국 ▲2일=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3일=일본—인도、브라질—이라크 ▲4일=한국—싱가포르、말레이지아—뉴질랜드 ▲5일=아랍에미리트—인도 ▲7일=한국—브라질、뉴질랜드—인도네시아 ▲8일=아랍에미리트—일본 ▲9일=브라질—싱가포르 ▲10일=말레이지아—아랍에미리트、인도—인도네시아 ▲11일=태국—이라크、뉴질랜드—일본 ▲12일=한국—이라크、말레이지아—인도 ▲13일=뉴질랜드—아랍에미리트、일본—인도네시아 ▲14일=브라질—태국、말레이지아—인도 ▲15일=이라크—싱가포르 ▲16일=한국—태국 ▲18일=준결승 ▲20일=결승

오늘 金泰式·아벨라 타이틀戰

◇아벨라

◇金泰式

WBC 플라이級 하오7시 奬忠體

프로복싱 WBC(세계권투평의회) 플라이급 타이틀매치 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23·멕시코)와 한국의 도전자 金泰式(24·동급7위)간의 15회전경기가 30일 밤 7시50분 장충체육관서 벌어진다. 숙명의 대결을 하루앞두고 강타자인 金은 『화끈한 경기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승리의결의를 나타냈으며 챔피언 아벨라도 타이틀 방어를 낙관했다. 국내 권투관계자들은 두선수가 70%이상의 KO율을갖고있는 강타자여서 초반 5회 이전에 승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보고 있다.

海外話題

英國陸上 코·오베트 두選手

1週새 世界新 3번 更新

코 3분47초33… 두번째 新

세계적인 남자육상 중거리선수인 英國의 세바스찬·코(24)와 스티브·오베트(25)는 1마일(1、609m) 레이스서 치열한 세계신기록경쟁을 벌여 화제를 모으고있다. 세바스찬·코는 최근 스위스 취리히서 벌어진 국제육상대회 1마일 레이스서 3분48초53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화제의 주인공이 됐으나 동료인 스티브·오베트가 8월27일 西獨코블렌츠市에서 열린 육상대회서 3분48초40으로 코의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코는 29일 브뤼셀서 열린 국제육상대회서 3분47초33의 놀라운 기록으로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작성、오베트에 뺏겼던 세계신기록의 영광을 이틀만에 되찾았다.【外信=綜】

世界 웰터級王座 통합전

史上 최고興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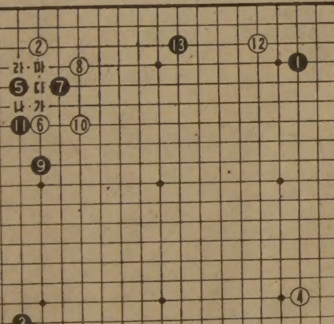
수익 5千萬달러될듯

【워싱턴28日=聯】오는 9월 16일 라스베이가스 시저즈·팰리스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프로복싱 WBA 웰터급챔피언 토머스·헌즈(美·32승 〈30KO승〉무패)와 WBC동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美·31승〈21KO승〉1패)간의 웰터급 통합타이틀戰은 복싱史上 최고액수인5천만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액수는 WBC헤비급타이틀을 탈환키위해 무하마드·알리가 작년가을 래리·홈즈와벌였던 경기의 흥행수익 3천만달러를 훨씬상회하는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1譜 1~13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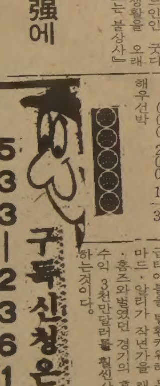
白(5段) 張秀英
黑(4段) 鄭壽鉉



名人戰 本選의 새식구

금년도 본선리그의 멤버는 徐奉洙7단을 필두로 徐能旭6단、張秀英5단、姜勳4단등 시드組와 새로예선을 통과한 河燦錫7단、姜哲民6단、鄭壽鉉4단등 도합7명이다. 鄭4단은 3차예선까지 무난히 승승장구끝에 결승전마저 돌파하고 처음으로 名人戰식구가된 청년기예파이다. 전북 남원태생으로 올해 26세。약10년전인 72년에 한국기원 원생으로 들어가더니 이듬해인73년 바로 초단、74년2단、77년3단、78년4단에 승단했다. 연령에 비하여 승단이 좀늦은감은 있으나 현재 曺薰鉉·徐奉洙의 뒤를 바짝쫓고있는 後起健將중의 중견임은 분명한사실。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어 꾸준한 노력을 요망하고 싶어진다.

棋理를 어기지않고 이지적인 바둑을 둔다는 평도받는 鄭4단은 첫선을 보이는 이바둑을 과연 어떻게 꾸려갈것인지 흥미있게 지켜보기로 한다. 黑1、3의 대각선은 호전적포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옛날얘기。지금은 이렇게 두는것이 오히려 관례적으로 되어있다。이리하여 黑5까지는 무어라 지적할 거리도 없는 진행이다。여기까지 피차 1수에 2、3분씩 소비하다가 白6에 8분、黑7에 6분、白8에 5분、신중을 거듭하고있다。白6부터 작전을개시하여 黑11까지 하나의 정석과정인데 이다음白은「가」에 뻗어 黑「나」白「다」黑「라」白「마」까지 정석을 끝내야 보통이지만、張5단은 白12쪽이 급하다보고 발빠르게 걸친것이다. 이에대한 黑13은 역으로 徐戰을 펴는수이다.【一凡】



ⓂⓁ 〈MUTUAL LIFE〉 ⓂⓁ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취급보험 :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 룹 보 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 : 494—3800(B)
481—8835(R)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팍)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 533－2361　MRS. KIM

쥬스바에서 파트타임여자 헬퍼구함
☎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베이비시터 구함 :
입주하셔서 베이비시터 하실분
☎ : 535－4441　미세스 김

식당 호모사(HOMOSA)
웨이트레스 구함 : 영어회화할 수 있는 분
☎ : 466－2250

키친헬퍼및 접시닦을 분 구함.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 환영
☎ : 960－6405 4 AVENUE ROAD. TOR.

애기 봐줄사람 구합니다 : 출퇴근하셔도 좋고,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 : 244－2043, 248－6065

PHOTO샾에서 일할 여자분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746－2120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차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구　인(사람 구함)
공장에서 일하실분 구함. 주 나흘간 낮과 밤 시후트 워크
주소 : 971 MATHESON BLVD. MISSISSAUGA.
☎ : 625－1433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도나스 샾에서 캐시어 구함
여자(아침8시～오후4시)
남자(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급　구
●스토어 매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풀타임 캐쉬어 구함
☎ : 742－0800, 241－4755 미스타 차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
(오후5시～오후11시)
☎ : 466－3995 QUEEN E. 지역

주말에 맥스밀크에서 일하실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KINGSTON & MIDLAND
☎ : 266－3644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 구함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람
☎ : 964－3354

도나스 샾 헬퍼구함 : FULL TIME＝3시～11시
PARTIME＝토3～11시, 일 9～9시
☎ : 782－7409(오전중)

주방헬퍼2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WEST근처
☎ : 767－0762 미스타 김

미싱자수 기술자 구함 :
자격2년이상
☎ : 690－3434 미스타 유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매매및 양도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매　매

서울식당을 싸게 팝니다. 리스 : 3년3개월
☎ : 532－0602
미스타. 정

22년된 꽃가게 매매 : F. T. D와 U. F. C멤버쉽이 있음.
☎ : 826－1992, 저녁6시이후 826－3246 SANDER JOHN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야채가게 팝니다
☎ : 690－6967

프렌차이즈 베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스키 휴양지 부근에 있는 전망있는 스토아 매매
에드·구마가이에게 연락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Near Horseshoe valley Ski Resort.
Modern building, large living quarters, great potential. Present Gross $150,000.00. 14% mortgage. Asking $149,000.00.
For details contact Ed Kumagai
CENTURY 21 Don Campbell Real Estate Limited
1-705-325-1366 or 1-705-325-9034.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배리지역)
주매상 : 8,000달러, 리스 : 4년＋5년
직접방문 요망
☎ : 705－726－5224

유명메이커 제품만 취급하는 TV, 스테레오 비즈네스에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람.
직접와 보십시요.
☎ : 745－5555　미스타 전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그로서리스토아 매　매
☎ : 265－0400 MR. 이그나지오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가게있는 건물 팝니다 :
주매상 $3,500 이상
☎ : 690－3382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 (오후6시 이후)

부 동 산 매 매
동부끝에 있는 방 여섯개의 집.
즉시 입주가능, 모게지가 없음.
ASKING $79,500.00
☎ : 461－5463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80년도 GMC VAN추럭 팝니다.
2만km
☎ : 923－607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FRUIT & FLOWER가게 : 3개월전 OPEN
전부 새장비, 주매상 4000～4500, 권리금 3만달러
917 KINGSTON RD.
☎ : 691－6768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0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새한칼라 현상소
68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미　용

스 파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토일·월요일 휴업
3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릴,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모든 購買活動의 84%는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효자재정을 원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女性界 소식

「앙드레·金」옷세일
앙드레·金의상실은 9월3일까지 고객을위한 서비스·세일을 실시한다. 세일 품목은 누비코트, 이브닝드레스 일상복등。

황효창 서양화전
서양화가 황효창씨의 초대전이 9월2일까지 太仁畵廊에서 열리고 있다. 弘益大美大출신인 황씨는 71년 한국美術大賞展 이후 인형을 소재로 독특한 경지를 개척, 79년 개인전까지 각종미술전에 출품했었다. 이번에전시된서양화는人形을素材로한23점。

理·美容무료봉사 주부교실 중앙회
주부교실중앙회는 9월3일 강남구반포2동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들을위하여 파마·커트의 무료봉사를 실시한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주부교실부설강좌에서 理·美容기술을 배운 40여명의 주부들이 자원봉사하게 된다. 문의전화 593-3628。

朴畬慶교수 독창회
소프라노 朴畬慶교수(서울大)의 독창회가 31일 저녁7시30분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열린다. 피아노에 李成均교수。레퍼토리는 헨델의「사랑이여 그대 어디에」, 슈만의「봉방의 장미로부터」, 무소르그스키의「어린이방」5곡등。

장애아父母교육 간호협회서특강
대한간호협회 서울지부는 9월3일하오2시 대한간호협회 강당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민은식씨 (삼육재활원 부원장) 조경자씨 (연세의료원재활의학과)。

모눈종이 위의 生 <188>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 ⑳

물끄러미 술잔을 내려다보다가 나는 그것을 조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에 불을 자르는 느낌이었다.

〈어제 내린 비〉에서 J씨가 정용의 유령에 관해서 말했을때「그건 바로 나예요」하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상상해 보았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뒤얽히지는 않았겠지. 잠시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J씨는 나를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는 아마 달아날궁리를 했을거야. 아니, 믿으려 들지 않았을는지도 몰라. 멀쩡한 표정으로 새침하게 앉아 있는 여자와 정용의 유령을 일치시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테니까.

다시 나는 찻잔의 술을 넘겼다. 이번에는 코끝에 진한 향기가 남았다. 처음에는 향기를 몰랐는데 두번째에서야 향기를 느낀것은 아무래도 미숙한 술꾼이기 때문이리라.

J씨가 나를 정용의 유령과 관련해서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미스터 한에게 아직도 속해있는 여자라는 심증을 거리낌없이 말하면서도 한번쯤 의심해보고 넘어가야 할일에는 전혀 둔감한 것이다. 내 외모, 말씨, 옷을, 표정, 어디에도 그런일을 저지를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것일까. 그렇지만 J씨는 결국 알게되겠지. 미스터 한을 만나면 한번 물어본다면서 번번이 잊어먹곤 했다고 그는 말했었어. 내일이라도 날이 밝으면 J씨는 그것을 확인할는지도 모른다. 미스터 한에게 제일먼저 이 기쁜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는 소리쳤으니까.

나는 나머지의 술을 모두 삼켰다. 그가 알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고 좀전에 얼핏했던 생각을 나는 되풀이 했다. 아침에 J씨가 깨어나면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 모두를 그에게 설명하는 거야. J씨는 내게 자랑까지는 몰라도,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있는 유일한 남자야. 그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돼. 어쩌면 그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고 당장 그를 통해서 성냥갑이 손에 들어왔잖아.

나는 근처의 카피트 위에 떨어진 성냥갑을 찾아 내 백속에 넣었다. 그런데 어떻게 J씨를 설득한다. 그야말로 무슨 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 때였다. 무언가 한가지 생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추적해도 돌이킬수 없었다.

취기와 피로감이 천천히 내 몸을 함락시켰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깜짝 놀라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곤 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그냥 잠들면 새 옷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잠이 잘풀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J씨가 먼저 깨어난 아침의 일들에 대한 뒤죽박죽의 상상이 가수(假睡)의 혼미를 틈타고 넘나들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J씨의 침실에 서있었다. 몽유병(夢遊病) 따위를 앓은 기억은 없었는데 나는 마치 꿈속에 서있는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가 생각하다가 나는 다시 포기해버렸다. 생각하는 일에 나는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까 내 머리속을 아주 빠른 속도로 스치고 사라졌던 한 생각이 저절로 반디처럼 반짝 불을 켜고 달려왔다. 그거야 J씨 옆에 눕는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생각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생각나겠지. 아주 알맞은 이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까. 나는 어느새 한 가지씩 옷을 벗고 있었다. 벗은 옷들이 의자위에 수북이 쌓였고, 그 위에 나는 팬티 스타킹과 마지막 것을 함께 벗어 올려 놓았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 그의 침대로 들어갔다.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 창 세